

일본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
최종 보고서

조선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현황조사분과회

남윤진
마쯔자키 마히루
박종후
스카이 요시노리
야마시타 마코토
오영민
이숙현
정인경
하세가와 유키코 (대표)

※이 조사 연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1 년 12 월

차 례

1. 조사 배경과 조사 목적 1
2.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3
3. 조사 실시와 응답 상황14
4. 집계 결과와 분석16
5. 맺음말69
참고문헌72
별첨 자료 1. 조사 협조 요청문78
별첨 자료 2. 설문지83
별첨 자료 3. 조사 협조 학교 일람93

1. 조사 배경과 조사 목적

2000년대 이후 한일 양국 간에 인적 및 문화적 교류가 급속도로 활발해지면서 일본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연구 기회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도 다양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런 한편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 역사 인식의 문제 등 상호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70년대 이래 오무라(1977, 1984)¹를 비롯하여 오고시(1994)², 국제문화포럼(1999³, 2005⁴) 등의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수를, 4년제 대학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⁵,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 공개해 왔다. 한편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서는 세계 각국의 한국학 연구 현황 조사의 일환으로 2007년에 발간된 조사에 이어 2016년, 일본의 교육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KF 2018). 그러나 이와 같이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조사가 과거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으나, 일본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을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 내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언어 교육은 앞 단계에서 학습된 것을 다음 단계에서 발전시키는 연계성이 있어야 학습자 요구에 부응한 효과적인 교육/학습이 이루어진다. 유럽에서 CEFR이 마련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교육/학습의 연계성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 그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외적 현황과 교육 내용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위의 조사들에서는 과목명과 과목의 위상, 담당 교원의 직위, 학급 수, 학생 수, 사용 교재 등 주로 외형적인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었으며, 4년제 대학과 고등학교 등을 하나의 연계된 교육 체계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학 조사와 고등학교 조사가 따로 실시되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4년제 대학에서는 끊임없이 커리큘럼 개혁이 이루어지며 한 과정 안에 복수의 과정이 공존하는 등 매우 복잡한 양태를 지니고

¹ 일본 내 대학에서 비전공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대학 수를 처음으로 조사한 것으로, 1977년에는 30 개교, 1984년에는 42 개교 대학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²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일본지부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교육 형태, 교육 내용에 주안을 둔 조사였다. (오고시 1994: 272)

³ 국제문화포럼(TJF)은 외국 청소년의 일본어 및 일본 문화 교육과 일본 청소년의 외국어 및 외국 문화 교육 촉진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국제교류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1987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011년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이행되었다.

⁴ 2002 년에서 2003 년에 걸쳐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고등학교 등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폭넓게 조사한 것이다.

⁵ 2010 년도 조사는 2011 년도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동일본대지진 후의 혼란으로 인해 실시되지 않았다. 2017 년 이후에는 이 조사항목이 없어졌다.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다 보니 이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하고 기계적인 설문으로는 전체적인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제도의 변화를 겪어온 당사자들 즉 교육 현장의 교사와 연구자들에 의한 폭넓으면서 치밀한 구조적 검토가 필요와 이를 반영한 조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이 최근 수년 간 조선어 교육학계에 공유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현황조사분과회는 한국 국제교류재단(KF)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일본의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19년도에는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본격적인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2020년 초부터 COVID-19 감염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본의 각 학교에서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졌다. 한국어 교육과 학습의 양상도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조사할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비교해 크게 손색이 없는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도 후반에 들어서 본조사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본조사 개시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조사에 응해 준 여러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여유를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한다.

2020년도 본조사에서는 1)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학교’를 전부 추출하고 2) 이들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설문 문항과 선택지를 디자인한 다음 3) 가능한 한 5년 후, 10년 후 재조사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2.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본 장에서는 2020년도 본 조사의 진행 방법과 경과에 대해 설명하겠다.

2.1. 조사 대상 추출

일본의 학교 체계는 그림 1 과 같다. 기관 명칭은 한국과 일본에서 직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한자 표기를 그대로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서 그 명칭으로 삼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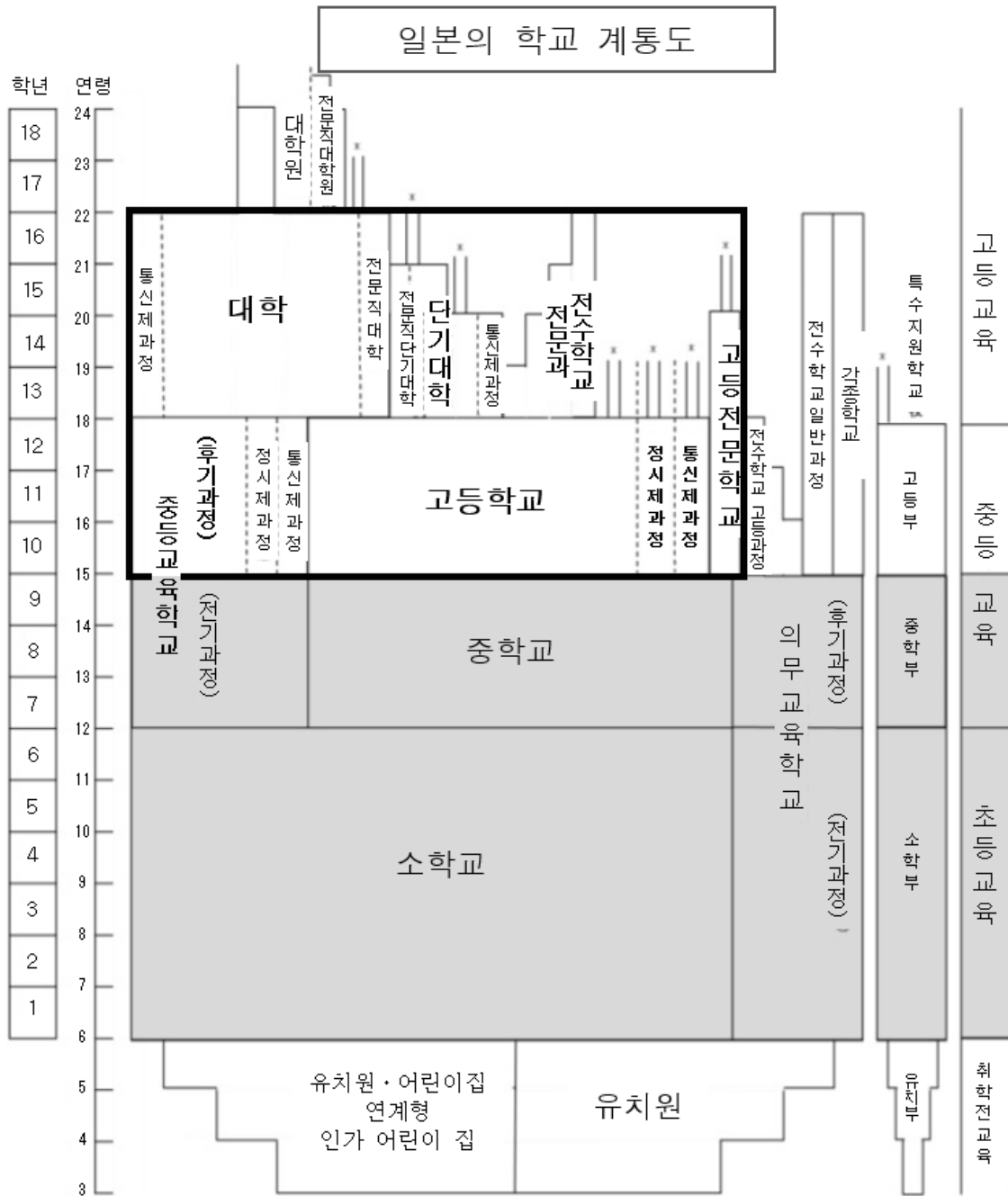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학교 계통도(일본 문부과학성 HP 에서)

본 조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실정으로, 한국계 및 조총련계 민족학교⁶의 모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⁶ 일본 전국에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한국계 학교는 도쿄에 1 개교, 오사카에 2 개교가 있는데 전자는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각종학교’이고, 후자는 일본 정부의 인가도 받은 ‘학교’(학교 교육법 1 조에 해당된다고 해서 흔히 ‘1 조교’라고 함)이다. 조총련계

그 목적과 방법 등에 있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소학교·중학교의 정식 수업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제외하였으며⁷, 2016년부터 설치된 의무교육학교⁸ 또한 이에 준하여 제외하기로 한다. 2019년에는 전문직대학 및 전문직단기대학이라는 높은 전문성을 키우는 새로운 종류의 학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만한 정보가 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특별지원학교에서도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있어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 역시 학습 환경 및 조건이 다르다고 보고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의 대상은 그림 1의 굵은 틀 안, 즉 4년제 대학⁹, 단기대학¹⁰, 전문학교 전문과정¹¹, 고등전문학교¹²,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¹³의 6종이다. 이에 본 조사 과정에서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들 6종의 학교 리스트를 수집하고, 거기에 등재된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계획서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해당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의 전체 대상 학교 수와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이 확인된 학교 즉 본 설문조사 대상 학교 수¹⁴를 학교 종류별로 표 1에 제시한다.

학교는 한일 양국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각종학교’이다.

7 일부 중등교육학교에서 3학년 때부터 외국어를 도입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8 소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소·중학교 간의 연결성을 강화한 학교이다.

9 일본에서 ‘大学(대학)’은 일반적으로 ‘university’ 즉 한국의 ‘대학교’에 해당되며, 하나의 대학(college)으로 구성되는 ‘단과 대학’ 또한 ‘大学’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은 일본에서는 ‘学部(학부, faculty)’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학제에 따른 명칭을 써서 ‘university’ 및 ‘단과 대학’을 ‘대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0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진학할 수 있는 2년제 대학으로, 원래 여성 교육을 전담했던 학교라 여자단기대학이 많다. 현재는 남학생도 입학할 수 있는 단기대학이 늘었다.

11 정식명칭은 ‘専修学校 専門課程(전문학교 전문과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진학할 수 있는 2년제 학교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재를 육성한다. 전 분야를 합하면 2779개교이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는 ‘상업실무 관계’ ‘문화·교양 관계’로 본 조사에서는 주로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12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진학할 수 있는 5년제 학교로, 주로 공업계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이다. 국립이 51개교로, 모든 都道府県(도도부현)에 적어도 1개교씩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공립이 3개교, 사립이 3개교이다.

13 일본의 학제 중 중등교육 전기에 해당되는 중학교와 후기에 해당되는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전후기 중등교육을 일관되게 행하는 6년제 학교로, 1999년에 발족되었다.

14 문부과학성 조사에 의하면 2016년에 한국어 교육이 실시된 대학 수는 469개교, 2018년에 한국어 교육이 실시된 고등학교 수는 342개교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의 교육 현황이 전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표 1 일본 국내 전체 학교 수 및 한국어 교육 실시 학교 수

	전 학교 수	한국어 교육 실시 학교 수	비율(%)
4년제 대학	795 개교	453 개교	57.0
단기대학	323 개교	82 개교	25.4
전문학교	2779 개교	13 개교	0.5
고등전문학교	57 개교	13 개교	22.8
고등학교	4874 개교	286 개교	5.9
중등교육학교	55 개교	3 개교	5.5
조사 대상 학교 수		850 개교	

학교 수로 보면 4년제 대학이 453 개교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의 286 개교이나, 비율로 보면 대학이 57%, 고등학교가 5.9%로, 고등학교가 확연히 줄어든다. 단기대학은 82 개교로, 수적으로는 적으나 비율로 보면 25.4%로, 4 개교당 1 개교 꼴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전문학교는 원래 수가 적은 데다 이공계 전문 교육기관이어서 한국어 교육과 거리가 있는 것 같으나 22.8%로, 꽤 많은 비율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공업, 유통, 운수 등의 산업계에서도 한국과의 인적 교류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학교는 세분화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기술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교육기관이어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의 수도 비율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2. 지역별 분포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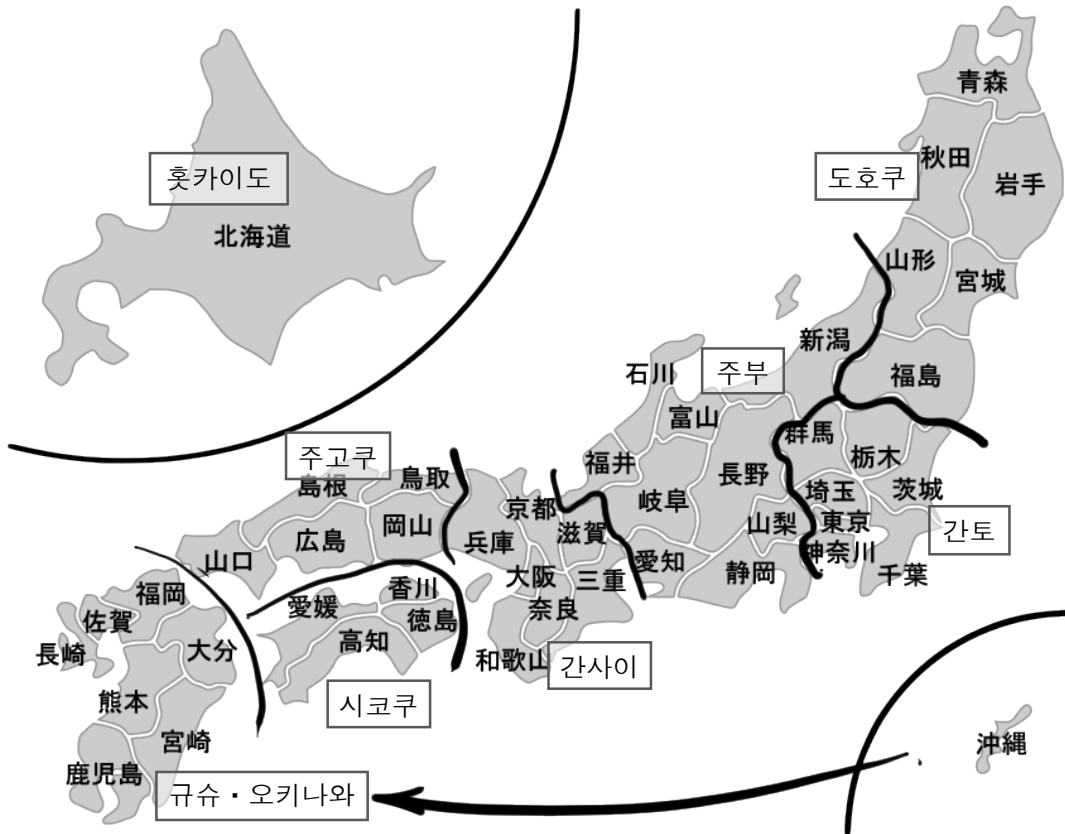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 실시 학교의 지역별 및 도도부현별 분포를 학교 종류별로 제시해 두고자 한다. 4년제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는 표 2에,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는 표 3에 정리하였다. 각 학교에서 영어 이외에 어떤 외국어를 선택하여 교육하는지는 지역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립학교의 교육 시책은 대부분이 도도부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 및 도도부현별 분포를 파악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각 지역과 도도부현의 위치를 그림 2에 나타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단, 여기서 제시하는 수는 학교의 규모와 특성, 지역 간의 인구 구성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 학교를 '1'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없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표 2 각 지역 학교 총수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교 수 및 비율(1)

지역 명	도도부현	4년제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A.학교 수	B.실시 수	B/A (%)	A.학교 수	B.실시 수	B/A (%)	A.학교 수	B.실시 수	B/A (%)
홋카이도		37	14	37.8	15	7	46.7	141	0	--
도 호 쿠	아오모리	10	6	60.0	5	2	40.0	24	0	--
	이와테	6	2	33.3	5	1	20.0	32	0	--
	미야기	14	11	78.6	5	1	20.0	64	0	--
	아키타	7	5	71.4	4	1	25.0	16	0	--
	야마가타	6	3	50.0	3	1	33.3	19	0	--
	후쿠시마	8	4	50.0	5	1	20.0	39	0	--
간 토	이바라키	10	5	50.0	3	1	33.3	61	0	--
	도치기	9	6	66.7	6	2	33.3	51	0	--
	군마	14	9	64.3	8	2	25.0	61	0	--
	사이타마	28	17	60.7	12	4	33.3	97	0	--
	지바	27	19	70.4	8	0	--	83	0	--
	도쿄	143	82	57.3	37	4	10.8	359	6	1.7
	가나가와	31	16	51.6	14	0	--	101	0	--
주 부	니가타	21	11	52.4	5	0	--	76	0	--
	도야마	5	3	60.0	2	0	--	23	0	--
	이시카와	13	2	15.4	5	1	20.0	34	0	--
	후쿠이	6	1	16.7	1	0	--	19	0	--
	야마나시	7	3	42.9	3	1	33.3	21	0	--
	나가노	10	5	50.0	9	3	33.3	57	0	--
	기후	13	2	15.4	11	2	18.2	31	0	--
	시즈오카	13	5	38.5	6	1	16.7	81	0	--
	아이치	51	29	56.9	19	4	21.1	162	1	0.6
간 사 이	미에	7	2	28.6	4	0	--	36	0	--
	시가	9	4	44.4	3	0	--	18	0	--
	교토	34	18	52.9	11	2	18.2	53	1	1.9
	오사카	55	33	60.0	23	9	39.1	211	3	1.4
	효고	36	25	69.4	17	3	17.6	80	0	--
	나라	11	7	63.6	3	0	--	28	0	--
	와카야마	4	1	25.0	1	0	--	20	0	--
주 고 쿠	돗토리	3	2	66.7	1	0	--	15	0	--
	시마네	2	2	100.0	1	1	100.0	19	0	--
	오카야마	18	10	55.6	9	2	22.2	48	0	--
	히로시마	20	12	60.0	5	2	40.0	69	0	--
	야마구치	10	7	70.0	5	2	40.0	36	0	--

시코쿠	도쿠시마	4	2	50.0	3	1	33.3	15	0	--
	가가와	4	2	50.0	2	1	50.0	25	0	--
	에히메	5	4	80.0	5	1	20.0	32	0	--
	고치	5	1	20.0	1	0	--	23	0	--
규슈·오키나와	후쿠오카	34	28	82.4	18	8	44.4	138	1	0.7
	사가	2	2	100.0	3	3	100.0	23	0	--
	나가사키	8	7	87.5	2	2	100.0	29	0	--
	구마모토	9	7	77.8	2	0	--	45	0	--
	오이타	5	4	80.0	5	3	60.0	41	0	--
	미야자키	7	5	71.4	2	1	50.0	32	0	--
	가고시마	6	4	66.7	4	2	50.0	38	0	--
	오키나와	8	4	50.0	2	0	--	53	1	1.9
		795	453	57.0	323	82	25.4	2779	13	0.5



(‘Prefectures of Japan nallow gray labeled Jp.svg’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2 일본의 도도부현(한자 표기)과 지역 명(한글 표기)

표 3 각 지역 학교 총수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교 수 및 비율(2)

지역명	도도부현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A.학교 수	B.실시 수	B/A (%)	A.학교 수	B.실시 수	B/A (%)	A.학교 수	B.실시 수	B/A (%)
홋카이도		4	1	25.0	276	17	6.2	2	0	--
도호쿠	아오모리	1	0	--	77	0	--	0	0	--
	이와테	1	0	--	79	4	5.1	0	0	--
	미야기	1	0	--	95	4	4.2	1	0	--
	아키타	1	0	--	54	3	5.6	0	0	--
	야마가타	1	0	--	61	7	11.5	0	0	--
	후쿠시마	1	0	--	110	0	--	0	0	--
간토	이바라키	1	1	100.0	121	3	2.5	4	0	--
	도치기	1	0	--	75	0	--	1	0	--
	군마	1	0	--	79	2	2.5	2	0	--
	사이타마	0	0	--	193	5	2.6	1	0	--
	지바	1	0	--	182	4	2.2	1	0	--
	도쿄	3	0	--	428	38	8.9	8	2	25.0
	가나가와	0	0	--	231	25	10.8	5	0	--
주부	니가타	1	1	100.0	102	5	4.9	7	0	--
	도야마	1	1	100.0	53	3	5.7	0	0	--
	이시카와	2	0	--	56	1	1.8	0	0	--
	후쿠이	1	0	--	35	0	--	0	0	--
	야마나시	0	0	--	43	3	7.0	0	0	--
	나가노	1	1	100.0	100	8	8.0	1	0	--
	기후	1	0	--	81	0	0.0	0	0	--
	시즈오카	1	0	--	138	2	1.4	0	0	--
	아이치	1	0	--	222	5	2.3	2	0	--
간사이	미에	3	0	--	70	5	7.1	1	0	--
	시가	0	0	--	56	4	7.1	1	0	--
	교토	1	1	100.0	110	4	3.6	0	0	--
	오사카	1	0	--	256	49	19.1	1	0	--
	효고	2	0	--	205	23	11.2	2	1	50.0
	나라	1	0	--	54	7	13.0	2	0	--
	와카야마	1	0	--	47	1	2.1	0	0	--
	주오쿠	1	1	100.0	32	3	9.4	0	0	--
주오쿠	시마네	1	0	--	47	5	10.6	0	0	--
	오카야마	1	0	--	86	1	1.2	2	0	--
	히로시마	2	0	--	130	1	0.8	1	0	--
	야마구치	3	1	33.3	79	3	3.8	1	0	--

시 코 쿠	도쿠시마	1	0	--	37	0	--	1	0	--
	가가와	1	0	--	40	1	2.5	0	0	--
	에히메	2	0	--	66	2	3.0	5	0	--
	고치	1	0	--	46	3	6.5	0	0	--
규 슈 · 오 키 나 와	후쿠오카	3	2	0.67	164	6	3.7	2	0	--
	사가	0	0	--	46	2	4.3	0	0	--
	나가사키	1	1	1.00	79	6	7.6	0	0	--
	구마모토	1	1	1.00	73	2	2.7	0	0	--
	오이타	1	0	--	55	4	7.3	0	0	--
	미야자키	1	0	--	52	1	1.9	1	0	--
	가고시마	1	1	1.00	89	7	7.9	0	0	--
	오키나와	1	0	--	64	7	10.9	0	0	--
		57	13	22.8	4874	286	5.9	55	3	5.5

표 2, 3 에서 도쿄를 비롯하여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 등 각 지방 중심 도시에 4 년제 대학과 단기대학이 몰려 있는 만큼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수도 이들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의 비율은 도쿄보다 오사카가 더 많다는 점이 주목되며, 가나가와와 효고가 그 뒤를 잇는다¹⁵. 그리고 이 4 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실시 학교 중 47.7%를 차지하고 있어 간사이와 간토에의 집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로 학교 종류별 한국어 교육 실시 학교 수의 비율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중등교육학교는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합친 형태의 학교인데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고등학교 1, 2, 3 학년에 해당되는 4, 5, 6 학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중등교육학교의 데이터를 고등학교와 합산해서 분석하기로 한다¹⁶.

¹⁵ 2017 총무성 인구 조사 및 법무성 재류외국인 조사에 의하면 일본 총인구에 차지하는 한국 국적 및 조선 적(籍) 인구의 비율은 3.8%인데 47 개 도도부현 중 이 수치를 넘은 것은 오사카부(12.3%), 교토부(10.2%), 효고현(8.0%), 도쿄도(7.1%), 아이치현(4.4%), 야마구치현(4.4%)의 6 개만으로, 간사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¹⁶ 몇 개 중등교육학교에서 3 학년부터 제 2 외국어를 실시하고 있음은 확인되고 있으나, 해당 학교들이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등교육학교 데이터를 고등학교 데이터와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표 4 각 학교 종류별 한국어 교육 실시 학교 수의 지역별 비율(%)

지역	4년제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홋카이도	37.8	46.7	0.0	25.0	6.1
도호쿠	60.8	25.9	0.0	0.0	3.8
간토	58.8	14.8	0.7	14.3	5.9
주부	43.9	19.7	0.2	33.3	3.2
간사이	57.7	22.6	0.9	11.1	11.7
주고쿠	62.3	33.3	0.0	25.0	3.4
시코쿠	50.0	27.3	0.0	0.0	3.1
규슈·오키나와	77.2	50.0	0.5	55.6	5.6
전체 평균	57.0	25.4	0.5	22.8	5.9

표 4 를 보면 지역적인 특성이 좀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규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교와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의 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규슈가 특별히 높지는 않은 점이 주목된다. 그런 한편 간사이의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의 2 배 정도 비율이 높은 점이 눈길을 끈다. 그 외에 주부는 전문학교와 고등전문학교를 제외하고, 시코쿠는 4년제 대학을 제외하면 한국어 교육 실시 학교 수 비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이 본 조사의 제 1 단계인 인터넷에 의한 전수 조사 결과의 분포 양상이다. 본 조사 제 2 단계에서는 위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에서 설문조사 사이트 구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2.3. 통합적인 파악이 가능한 설문 문항과 선택지의 디자인

본 조사에 앞서 실시한 2019 년도 파일럿 조사는 4년제 대학 대상 조사와 고등학교 대상 조사를 따로 실시하였다. 4년제 대학의 조사 항목은 KF(2018) 조사를 바탕으로 과거 일본에서 실시된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와 상기한 타 외국어 교육 현황 조사를 참고하여 기관 정보, 응답자 정보, 과정 정보, 한국어 수업 시수 및 수강자 수, 한국어 교육 담당자 정보, 한국학 관련 과목 정보, 한국 연수 및 유학 정보, 한국학 관련 활동 등으로 나누어 질문 내용을 담았다. 고등학교 대상 조사는 국제문화포럼(1998, 2005)과

고등학교한국어교육 네트워크(Japan Association for Korean-language Education at High Schools: JAKEHS)에서 수시로 실시해 온 내부적 설문 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특유의 교육 목표와 과제 등과 관련된 설문 내용으로 구축하였다.

파일럿 조사와 관계자들로부터의 정보 및 의견 수집을 통해 4 년제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교육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학사 운영이 다양해지고 교육 과정의 구조적 실태 파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수업시간은 90 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어떤 대학은 95 분으로 실시되고, 또 다른 대학은 100 분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기제가 2 학기제에서 3 학기제, 4 학기제로 변환된 대학이 있는가 하면 3 학기제가 2 학기제로 변환된 고등학교도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교육 단위 파악이 중요해진다. 오래 전처럼 1 학기제인 경우 한 과목을 1 년 동안 수강하면 과목명은 하나지만 4 학기라면 ‘한국어 I·II·III·IV’라든지 ‘한국어 I A/B·II A/B’와 같이 과목명이 복잡해진다. I, II, A, B 와 같은 기호의 뜻하는 바도 학교마다 다 다르다. 이러한 시스템과 더불어 주 1 회인지 주 2 회인지, 주 2 회라면 그것들이 독립된 수업인지 연속된 수업인지 등의 정보도 같이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 시스템이 다양해지다 보니 ‘초급’, ‘중급’과 같은 학습 수준에 관한 명칭이나 정의에도 차이가 많아진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수업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이들 전제 조건을 먼저 세밀하게 파악한 뒤 각 조건에 맞는 설문 항목 및 응답지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물론 설문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설문이 복잡하고 양이 많으면 부담이 많아져 충실한 응답을 얻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설문에는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쓰지 않고 되도록 짧은 문장으로 묻는 것이 좋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질문이 짧고 단순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보충 설명 없이 응답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파일럿 조사에서는 정확하게 답할 수가 없어 난외에 설명 글을 쓴 응답자가 꽤 있었다. 따라서 설문 자체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고 분기점에서 선택한 코스에 따라 기계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 사이트를 설계하였다.

또한 최근 진전된 인터넷을 통한 학교 정보 공개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4 년제 대학에서는 수업과목마다 수업계획서(syllabus)를 거의 다 공개하고 있으며, 단기대학과 고등전문학교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계획서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기는 하나 학과마다 교육과정을 인터넷으로 참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개된 수업계획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속한 과정 내의 정해진 조건 하에서 수강할 수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게재하여 학생들의 수업 선택과 수강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그 수업을 어떤 규정에 이수하게 되는지, 어떤 순서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등의 구조적인 정보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은 각 학교의 ‘이수요강’에 명시되는데 이는 외부인이 샅샅이 참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각 과목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있으나 복수 과목 간의 관계나 단계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은 당사자, 그것도 학사 운영에 관여하는 전임 교직원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다망한 현장 교직원들에게 번거롭고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에게는 본 조사의 목적과 의의를 자세히 설명하고 정중하게 의뢰함과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응답 작업 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했다.

또한 대학과 고등학교 외의 학교 종류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본 조사의 큰 목적이기에 이와 같은 조건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데이터 베이스 구축 회사와 논의를 거듭하였다.

검토 끝에 먼저 모든 과정을 비교적 단순한 질문을 통해 ‘전공’, ‘교양’, ‘강화’의 3 가지 과정으로 나누도록 하고, 한 대학 내에 여러 종류의 과정이 있을 경우 이들을 독립된 것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여기서 ‘전공’이란 ‘학과 · 코스 · 전공 명에 “한국”, “조선”, “코리아”, “동아시아” 등 한국어 · 한국학 (조선학) 에 관련된 문구가 들어가 있는’과정을 의미하며, ‘교양’이란 ‘대학에서는 흔히 “교양외국어”, “제 2 외국어”, “초수(初修)외국어” 등으로 불리우며, 고등학교 등에서는 “선택과목”이라 불리’는 과목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강화’란 ‘한국어 · 한국학 (조선학) 이외의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한국어보다 밀도 있고 강화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부전공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다양화된 수업 시간과 학기 제도(2 학기제, 3 학기제, 4 학기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설문 구성을 고안하였다.

2020 년도 본조사에서는 2019 년도 설문을 기본으로 하면서 2019 년도에 부족했던 설명, 오해하기 쉬웠던 표현 등을 수정하고, 선택지를 재고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보충설명란을 설정하는 등의 개선을 추가하였다.

고등학교 대상 조사는 2019 년도에는 따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설문 항목이 대학과 차이가 났었으나 2020 년도에는 전 학교 종류를 통틀어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일부 설문을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설문 내용을 조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별첨 자료 1 을 참조하기 바라며, 4 장에서 응답 결과와 분석 내용을 논의할 때에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2.4. 데이터베이스 기반 웹 시스템 구축

일반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설문지를 사용할 것이냐 데이터베이스 기반 웹 입력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데 본 조사는 차후 재조사를 고려하여 웹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시스템은 구축 시에 비용이 많이 드나 집계가 비교적 간편하며, 반복적으로 이용하려 할 때 비용과 일손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된 정보를 재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 학교 내부 자료를 참조하거나 다른 부서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는 질문도 포함되며, 향후 수백 개교에 이르는 학교를 조사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된 웹 기반 조사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ID/PW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수시로 정보의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한국의 설문 조사 전문업체인 Korea Research에 의뢰하였다.

응답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1) 조사 사이트는 조사 대상 학교마다 미리 정한 ID/PW 와 연결된 고유 페이지로 설정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학교 정보는 미리 입력해 놓았다. (2) 2019 년도 파일럿 조사에서 얻어진 응답 중 2020 년도 설문 내용과 동일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해당 응답란에 입력해 놓고 2020 년 응답 내용이 2019 년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고쳐 쓰기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대한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내용은 정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는 목표 때문에 설문 사이트 구축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체적인 작업 개시시기도 지연되어 조사 개시시기가 예정했던 11 월보다 3 개월 정도 늦어진 2 월이 된 점이 가장 큰 반성점이라 해야 하겠다.

3. 조사 실시와 응답 상황

각 학교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은 2021 년 2 월 말에 실시하였으며 1 차 응답 마감은 3 월 20 일로 하고, 최종 마감은 3 월 말까지로 하였다.

조사 협조 요청은 의뢰 메일 송신과 지면 의뢰장 우송의 2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상기한 전국의 전 학교에 대한 인터넷 검색 조사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전임 교원 또는 교무 담당부서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로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문장과 함께 각 학교 고유 페이지의 URL 링크를 보냈다.

인터넷 검색 조사로 메일 주소를 알 수 없었던 대상에 대해서는 각 학교 한국어 교육 담당자 혹은 교무 담당부처 앞으로 지면으로 조사 협조 요청과 설문 사이트 URL 그리고 해당 학교 고유의 ID/PW 를 보냈다. 학교에 따라서는 전공과정과 교양과정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들 과정을 각각 독립된 조사 대상으로 간주하여 ID/PW 를 따로 발행하였다. 한 대학 내에서 학부마다 독립된 외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ID/PW 를 따로 발행하였다. 이하에 제시하는 조사 대상 및 응답 수는 학교 수가 아니라 ID 수, 즉 과정 수를 뜻한다.

표 5 는 조사 협조 요청에 대한 응답 상황을 메일에 의한 의뢰와 지면에 의한 의뢰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5 조사 대상 과정 수와 의뢰 방법별 응답 과정 수

학교 종류	조사 대상	메일	응답 수 (응답률)	지면	응답 수 (응답률)	전체 응답 수(응답률)
대학	468	277	95 (34.3%)	191	33 (15.8%)	128 (27.4%)
단기대학	82	34	3 (8.8%)	48	8 (16.7%)	11 (13.4%)
전문학교	13	3	0	10	0	0 (0%)
고등전문학교	13	7	0	8	2 (25.0%)	2 (13.3%)
고등학교	295	39	29 (74.4%)	245	56 (22.9%)	85 (28.8%)
전체	872	359	127 (35.4%)	502	99 (19.7%)	226 (25.9%)

전체적으로 응답률이 결코 높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조사 개시 시기의 지연과 함께 3 월이 학년 말이며 4 월 개학 준비 등으로 교직원들이 다망한 시기였다는 것도 원인이라 하겠다.

학교 종류별로 보면 전문학교에서 응답이 1 건도 없었다. 이는 다른 학교 종류와 달리 전문학교는 인터넷 상에 교육과정이나 수업 계획을 공개하는 습관이 없어 교육 내용 공개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조사에 응하는 데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대학과 고등전문학교의 응답률이 4 년제 대학이나 고등학교보다 낮은 것은 이들 학교는 각각 실용적인 전문분야가 따로 있어 한국어 교육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이러한 조사에 대한 의의를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의뢰 방법에 관해서는 고등학교보다 4 년제 대학이 업무의 전자화가 진전되어 있어 인터넷 상에 이메일 주소가 공개된 경우가 비교적 많았고, 이메일에 의한 의뢰에 3 분의 1 정도가 응답하여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다. 이와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담당자나 담당 부서의 이메일 주소를 인터넷 상에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¹⁷ 지면으로 의뢰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으며,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이메일로 의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답률은 매우 높았다.

4. 집계 결과

본 장에서는 조사에 대한 응답 내용을 설문 번호 순서에 따라 분석하겠다.

먼저 Q1 은 기관 정보, Q2 는 응답자 정보, Q3 은 조사 대상 과정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이들 개별 정보는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일본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진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한국어 교육 실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인 Q4 이하의 응답 내용을 집계, 분석하겠다.

4.1. 수강 등록 절차에 대하여

Q4-1(1)은 ‘한국어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를 묻는 설문이다. 집계 결과는 그림 3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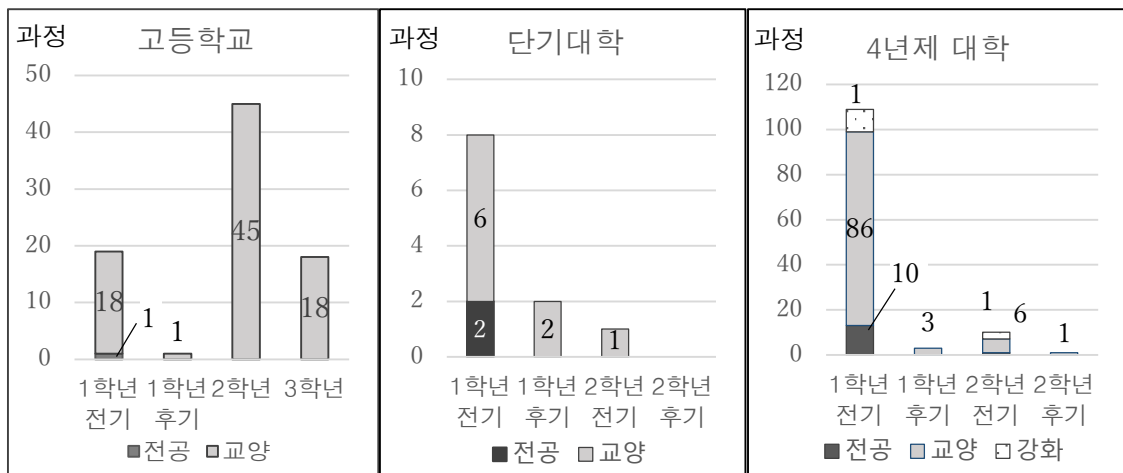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어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개시시기는 무응답을 제외한 83 개 과정 중 1 학년이 19 개 , 2 학년이 45 개, 3 학년이 18 개로, 2 학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현직 교원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는 기본 과목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입학 직후부터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일

¹⁷ 공립 학교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내부 정보 유출과 인터넷을 통한 외부 공격을 경계하여 인트라넷을 이용하는 등 전자 정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것이라고 한다. 한편 단기대학에서는 11 개의 모든 과정 중 10 개 과정이, 4 년제 대학에서는 무응답을 제외한 108 개 과정 중 100 개 과정이 한국어 교육을 1 학년 때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교양 과목 및 도구 과목이 재적 기간의 전반부(단기대학의 경우 1 학년, 4 년제 대학의 경우 1, 2 학년)에 집중되는 커리큘럼 편성과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고등전문학교는 교학 구조가 독특하며 응답도 2 개교 뿐이어서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2 개 과정 중 1 개 과정이 4 학년 전기에, 1 개 과정이 5 학년 전기에 수강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Q4-1(2)에서는 ‘학생이 수강할 언어를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기회’를 물었다. 선택지는 다음 ①~⑦과 같으며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 응답 결과는 그림 4 에 제시한다. 고등전문학교에서는 단기대학 1, 2 학년에 해당되는 4, 5 학년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대학(교양)과 합산하여 제시한다.

- ①입학 전부터 정해져 있다. / ②교무 설명회·수업계획서를 참고한다.
- ③외국어 수업을 위한 설명회 팸플릿 등을 참고한다.
- ④복수 언어를 1 학기 정도 수강한 뒤에 선택한다.
- ⑤몇 번 정도 수강해 본 뒤 선택한다. / ⑥상급생들에 의한 추천 행사 / ⑦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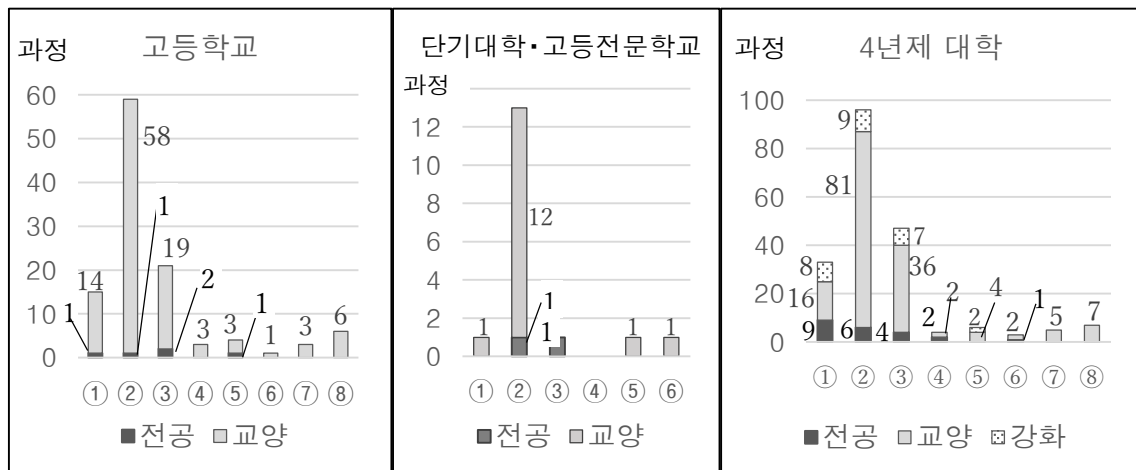


그림 4 학생이 수강할 외언어를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기회

수강 외국어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는 고등학교, 단기대학, 4 년제 대학 모두에서 ②교무 설명회 및 수업계획서와 ③외국어 수강 설명회 및 팸플릿의 순서로 나타났다. ①입학 전부터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전공 과정 뿐만 아니라 교양 과정에서도 입학 전에 미리 수강할 외국어를 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전공 언어를 입학 후에 교무 설명이나 수강 체험을 거쳐서 정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④1 학기 정도 수강한 뒤에 선택하는 방법도 고등학교는 3 개 과정, 4 년제 대학은 4 개 과정에서 채용되고 있다. ⑤몇 번 수강해 본 뒤 선택하거나 ⑥상급생들에 의한 추천 행사 혹은 ⑦그 외(상급생의 수업을 참관한다)의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수강할 외국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Q4-1(3)은 ‘수강 희망자는 모두 수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설문이다. 선택지는 다음 ①~②와 같으며, 집계 결과는 그림 5 와 같다. 여기서도 고등전문학교의 응답을 단기대학(교양)과 합산해서 제시한다.

- ① 정원을 넘지 않는 한 모두 수강할 수 있다.
- ② 일정한 수강 조건 혹은 선발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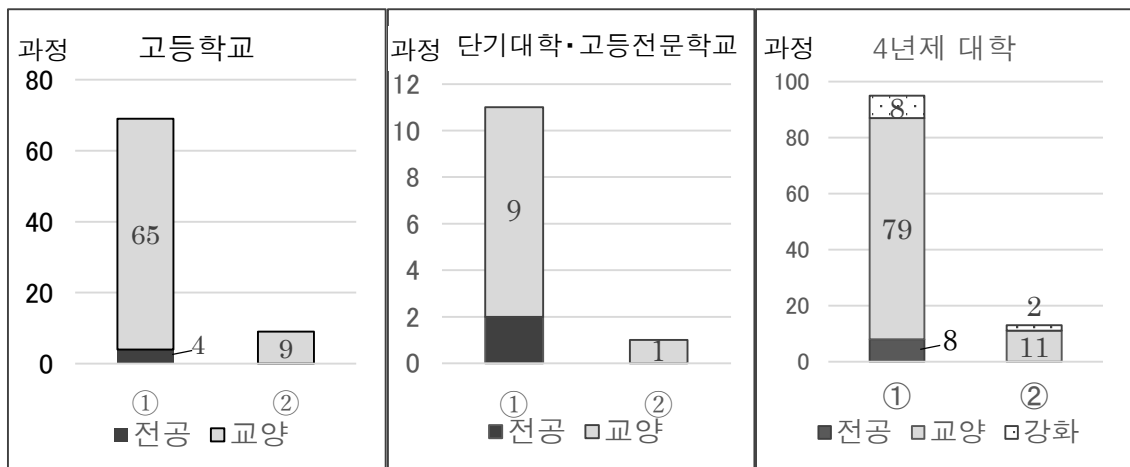


그림 5 수강 희망자가 모두 수강 가능한지

대부분의 경우 희망자 전원이 수강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0% 안팎의 과정에서 이수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4-1(4)는 ‘수강 희망자가 정원을 넘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묻는 설문이다. 선택지는 다음 ①~④와 같으며 집계 결과는 그림 6 과 같다.

- ① 선착순으로 수강한다. 정원초과 등록 불가 / ② 수강 희망자 대상으로 추첨함
- ③ 성적 등 일정 기준에 따른 선발 /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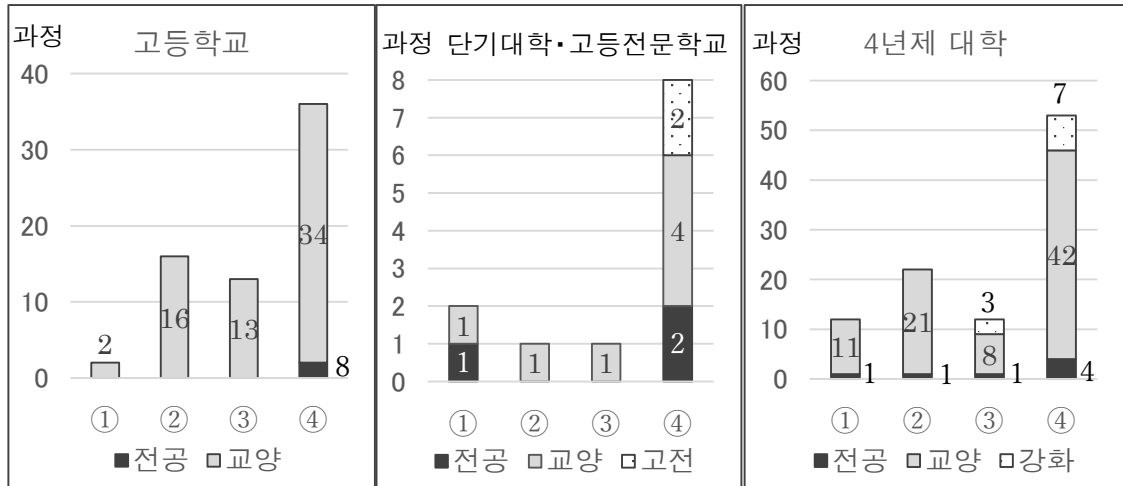


그림 6 수강 희망자가 정원을 넘은 경우의 대처 방법

수강 희망자가 정원을 넘은 경우 ①선착순으로 수강 가능하다고 답한 과정은 전체적으로 소수였으며, ②추첨한다고 답한 과정이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에서 응답의 약 22%를 차지하고, ③성적 등의 일정 기준으로 선발한다고 답한 과정이 응답의 10%대를 차지하였으나 ④기타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이 있었으나 ‘수강 희망자가 정원을 넘은 경우의 대응’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한다.

고등학교: 클래스를 증설한다, 교원이 조정한다, 과제를 제출시켜 전형한다, 상담을 통하여 조정한다

단기대학: 클래스를 증설한다, 상담을 통하여 조정한다

4년제 대학: 클래스를 증설한다, 상담을 통하여 조정한다, 추첨한다, 제 1~제 4 희망까지 제출시켜 조정한다, 성적 순으로 시차 등록시킨다

전체적으로 수강자 수를 엄격히 제한하기보다 원하는 학생들은 되도록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 운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4.2. 한국어 기(既) 학습자에 대한 대응

Q4-2에서는 ‘입학 전에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기학습자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복수 응답을 가능케 하였다. 선택지는 다음 ①~⑦과 같으며 집계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 ① 다른 학생들과 구별없이 입문반을 수강하게 한다.
- ②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레벨에 맞는 수업을 이수하게 한다.
- ③ 교내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치르게 하고 레벨에 맞는 수업을 이수하게 한다.
- ④ 기 학습자용 클래스에서 수강하게 한다.
- ⑤ 초급 과목에 등록시키고 실제 수업은 레벨에 맞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배려한다.
- ⑥ 다른 외국어를 수강하도록 지도한다. / ⑦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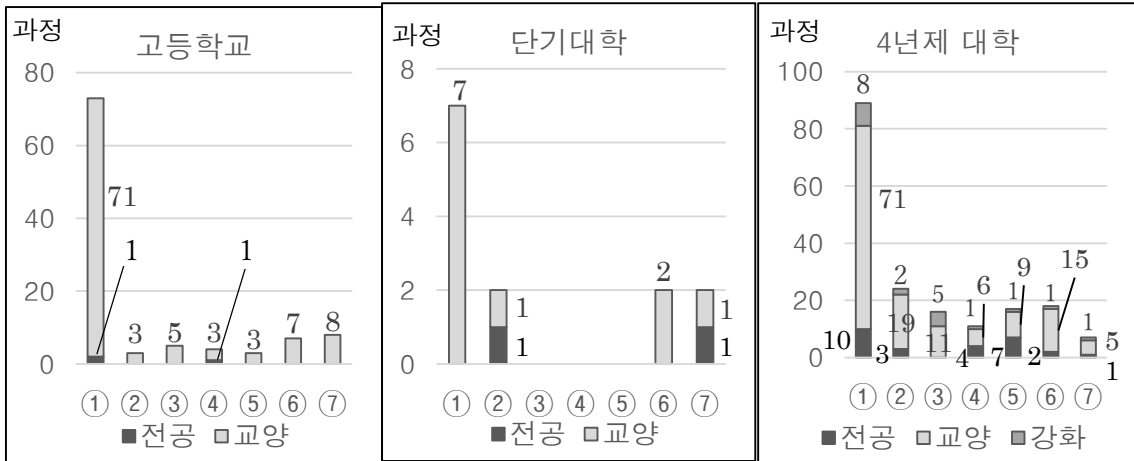


그림 7 입학 전에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기학습자에 대한 대응

입학 전에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는 학생이 한국어 수강을 희망할 경우, 고등학교, 단기대학, 4년제 대학 모두 ① 다른 학생과 구별 없이 입문반을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입학 전의 학습 성과를 인정하여 레벨에 맞는 수업을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②, ③)도 단기대학, 4년제 대학에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하며, 그 대응에도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 부분은 학습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좀더 많은 대학에서 그러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대학보다 더 비율이 적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입학 전 한국어 기 학습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최근 한국어 학습자의 저연령화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3. 수강생이 이수할 최소 학점과 최대 학점

Q4-3 은 “해당 과정에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한국어의 최소 학점 수와, 이수 가능한 최대 학점 수”를 묻는 설문이다. 이는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학습이 가능한지를 학점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최소 학점과 최대 학점을 숫자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고등학교 교양 과정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84 개 교양 과정 중 최소 학점에

대해서는 63 개 과정이, 최대 학점에 대해서는 59 개 과정이 응답하였다. 집계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8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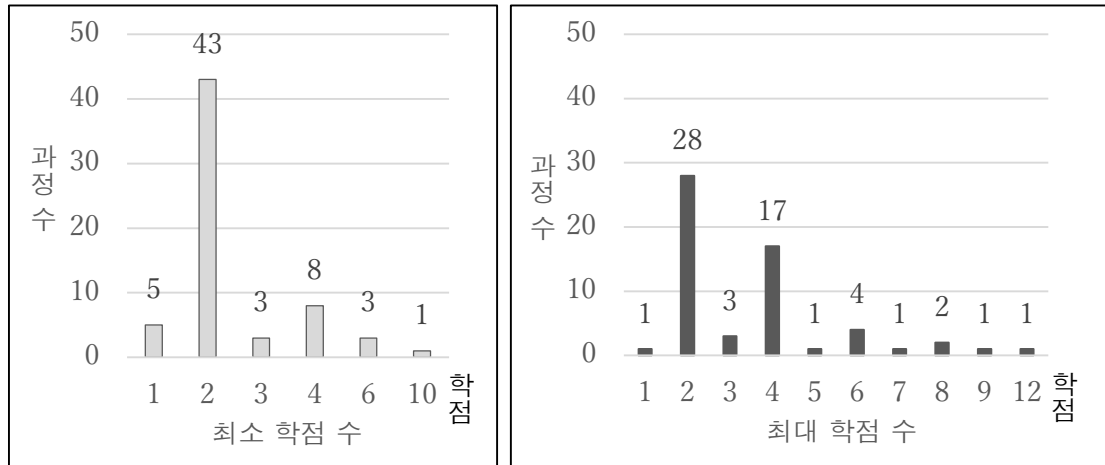


그림 8 고등학교 교양 과정의 최소 학점 및 최대 학점 수별 과정 수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1 년 동안(35 주)에 걸쳐 50 분 수업을 주 1 회 들으면 1 학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2 학점이라면 주 2 회 수업을 1 년 동안 듣거나, 주 1 회 수업을 2 년 동안 듣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 학점으로 2 학점을 설정하고 있는 과정이 43 개 과정(68.3%)으로 전체의 3분의 2 가 넘는다. 교양 과정인 만큼 최소 학점을 2 학점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으나 4 학점 이상의 비교적 많은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12 개 과정(19.0%)이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대 학점에서는 2 학점이라는 응답이 28 개 과정(47.5%)으로 절반에 가까우며, 다음으로 4 학점이라는 응답이 17 개 과정(28.8%)이었다. 또한 1 학점과 3 학점이라고 응답한 학교를 포함하여 1~4 학점을 최대 학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49 개 과정으로 전체의 83.1%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본의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4 학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전공 과정은 단 1 과정 뿐이었는데 최소 학점, 최대 학점 모두 15 학점으로, 해당 과정의 수강생 전원이 3 년 동안 똑같이 공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아주 탄탄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고등전문학교의 경우 응답이 있었던 학교는 1 개 과정이었으며, 최소 학점, 최대 학점 모두 1 학점이었다. 졸업 후 산업계에서 활약하면서 한국에 출장 갔을 때 한글을 전혀 못 알아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간단한 인사 정도만이라도 알면

낮다는 취지일 것이다.

단기대학 교양 과정의 경우, 최소 학점에 대해서는 9 개 과정에서, 최대 학점에 대해서는 8 개 과정에서 응답이 있었다. 단기대학 교양 과정의 최소 학점 및 최대 학점을 집계한 결과는 그림 9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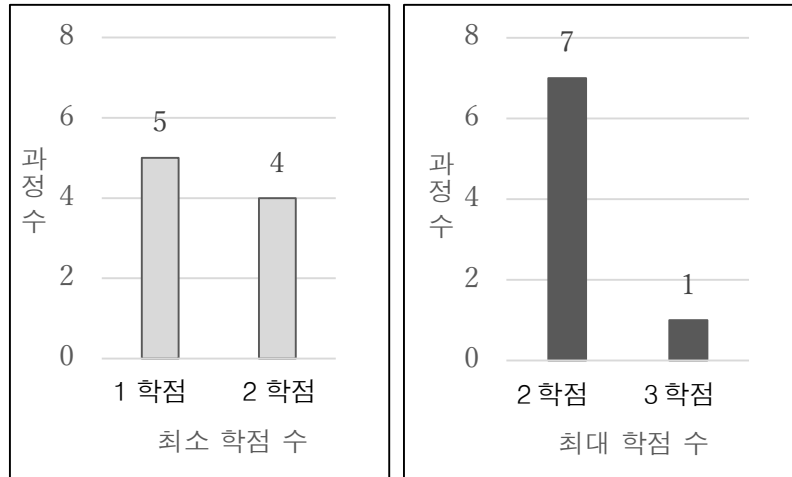


그림 9 단기대학교 교양 과정의 최소 및 최대 학점 수별 과정 수

단기대학 교양 과정에서 제공되는 한국어 과목의 최소 학점 수는 1 학점인 경우가 5 개 과정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 4 개 과정이 2 학점이었다. 최대 학점 수를 보면 2 학점인 경우가 8 개 중 7 개 과정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3 학점인 경우가 1 개 과정이었다. 학점 수가 적은 것은 2 년이라는 단기간에 전공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양 교육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대학 전공 과정은 2 개 과정이 있는데 한 과정에서 최소 8 학점, 최대 16 학점이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또 한 과정에서는 최소 2 학점이라는 응답만이 있었다. 2 년 동안에 16 학점이면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은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4 년제 대학의 결과를 보도록 한다. 교양 과정에서는 최소 학점에 대해 75 개 과정에서, 최대 학점에 대해 64 개 과정에서 응답이 있었다. 강화 과정에서는 최소 학점에 대해 9 개 과정에서, 최대 학점에 대해 8 개 학교에서 응답이 있었다. 전공 과정에서는 최소 학점에 대해 12 개 과정에서, 최대 학점에 대해 9 개 과정에서 응답이 있었다.

먼저 대학의 교양 과정의 조사 결과를 보도록 한다. 교양 과정은 건수도 많고 분포 범위도 넓기 때문에 최소 학점과 최대 학점을 따로 제시한다. 먼저 최소 학점 수부터

보면 그림 10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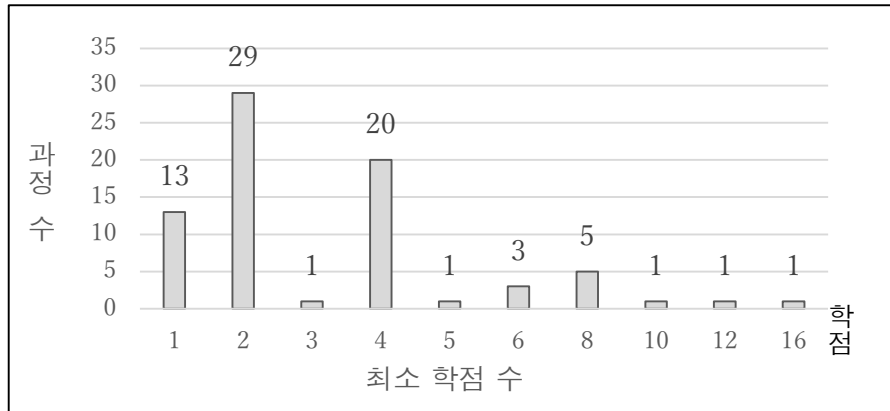


그림 10 대학 교양 과정의 최소 학점 수 분포

교양 과정의 최소 학점 수는 1 학점에서 16 학점까지 분포되었다. 그 중 2 학점이 29 개 과정, 4 학점이 20 개 과정, 1 학점이 13 개 과정으로 응답이 비교적 집중되었다. 1~4 학점 사이에 63 개 과정이 분포되며 이는 전체의 84.0%가 된다.

교양 외국어 과목인 경우 보통 90 분 수업을 주 1 회 15 주 받으면 1 학점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2 학점이면 1년 동안 주 1회 수업을 듣는 것이 전형적인 구성이고, 4 학점이면 1년 동안 주 2회 수업을 듣거나, 주 1회 수업을 2년에 걸쳐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으로 교양 과목의 최대 학점 수를 보면 그림 1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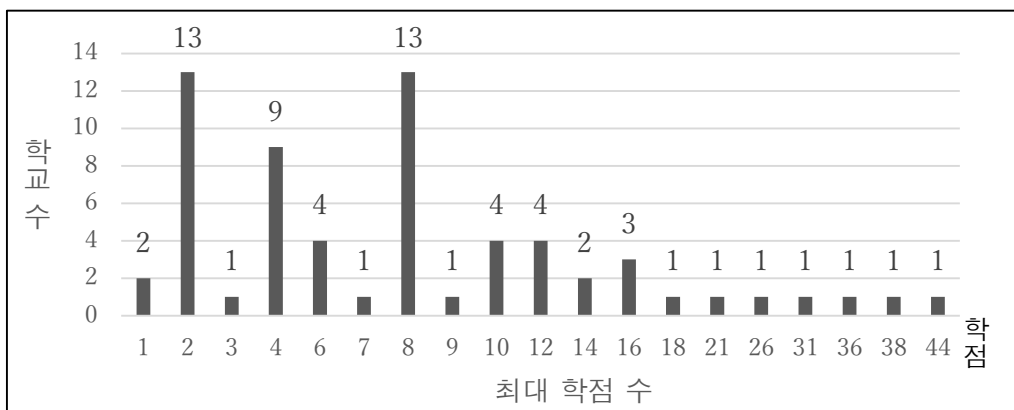


그림 11 대학 교양 과정의 최대 학점 수 분포

최대 학점 수에 대한 응답은 1 학점에서 44 학점까지 매우 넓게 분포되었다. 일부 30 학점을 넘는 학교도 보이나, 이는 해당 대학에서 특단의 조건 아래에서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치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2 학점이라는 응답과 8 학점이라는 응답이 13 개 과정씩 있었으며, 4 학점이라는 응답이 9 개 과정으로 여기까지가 상위 3 개 패턴이다. 기타 6 학점, 10 학점, 12 학점 등이 각각 4 개 과정씩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상위 3 개 패턴을 합하면 54.7%로 절반을 넘으며, 3 학점과 6 학점을 포함한 2~8 학점으로 범위를 넓히면 64.1%로 약 3 분의 2 에 달한다. 거기에 답한 학교가 4 개 과정인 2~12 학점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78.1%로 전체의 4 분의 3 이상이 된다.

이상과 같은 분포를 보았을 때 대학의 교양 과정에서는 최대 2~8 학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학교가 주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9 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학교도 보이며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일부 학부나 학과에 따라서는 교양 과정에서 상당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강화 과정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강화 과정의 최소 학점 수와 최대 학점 수를 집계한 결과는 그림 12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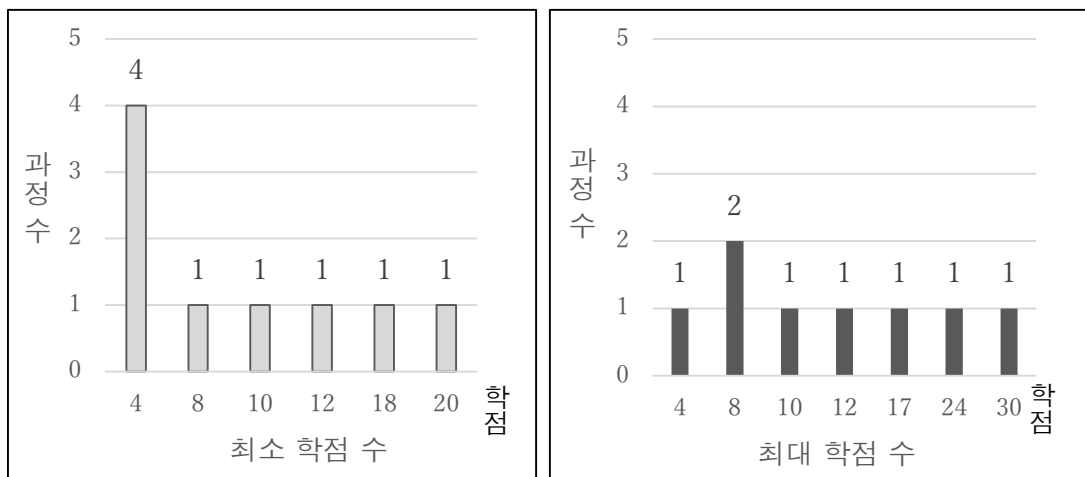


그림 12 대학 강화 과정의 최소 및 최대 학점 수 분포

강화 과정의 최소 학점으로는 4 학점인 학교가 4 개 과정으로 가장 많았으나 분포는 4~20 학점까지 넓게 나타났다. 최소한 4 개 학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과정 이수 인정되는 학교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이나, 각 과정의 성격에 따라 학점 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 학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4~30 학점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과정에 따라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전공 과정의 최소 및 최대 학점을 집계하면 그림 13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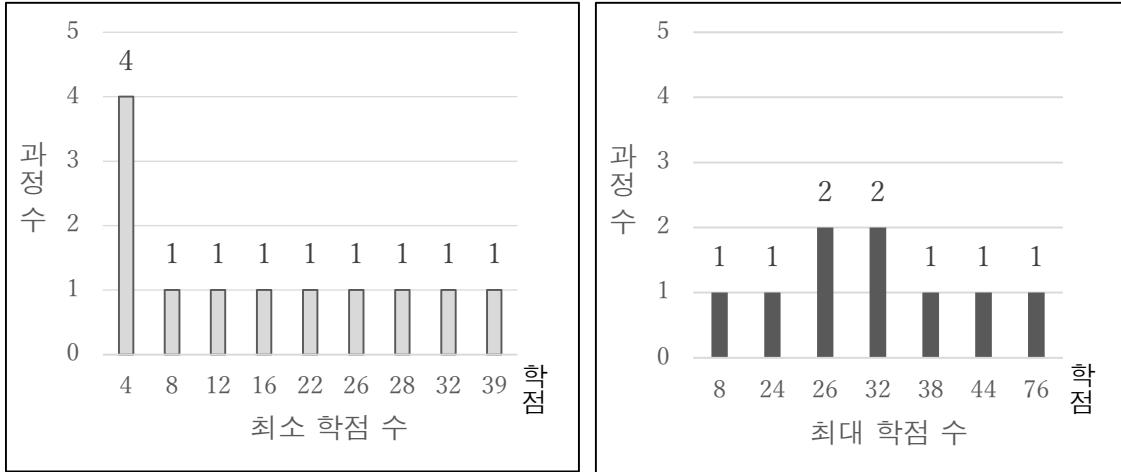


그림 13 대학 전공 과정의 최소 및 최대 학점 수 분포

최소 학점을 보면 4 학점부터 39 학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 과정의 경우 각 전공의 교육 목표가 한국어에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문화나 사회 등 한국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학교마다 제공되는 한국어 과목이 양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최대 학점을 보면 최소 학점과 마찬가지로 큰 범위에 분포되고 있다. 역시 학교마다의 교육 목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4. 수강 가능한 영어 외의 외국어

Q4-4 는 “해당 과정에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이다. 일본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대부분은 영어 교육을 절대적인 전제로 한 그 외의 여러 외국어 교육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위상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선택지에 일본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현재 어느 학교에서든 외국어 교육에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 교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수화와 고대 이집트 문자 등에 대해서는 이들 또한 언어 교육의 일환이라는 인식 하에 외국어 교육과 같은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서는 수강생이 있는 경우에 그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으나 응답자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략적인 수치로 응답했거나 기입이 없는 경우도 있어 유의미한 데이터로 집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국어의 종류에 한해 결과를 보도록 한다. 또한 이 질문은 학교의 외국어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양 과정의 결과에 대해서만 소개하겠다.

이하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단기대학교, 대학교의 순으로 결과를 보도록 한다.

먼저 고등학교에서는 76 개 과정에서 응답이 있었으며, 그 내역을 보이면 표 6 과 같다.

표 6 고등학교의 영어 외의 외국어 개설 상황 (단위: 개)

언어명	과정 수	언어명	과정 수
중국어	59	일본어	2
프랑스어	28	일본수화	2
스페인어	19	포르투갈어	2
독일어	17	라틴어	1
러시아어	5	아랍어	1
이태리어	2	아이누어	1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중국어도 같이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를 제외하면 유럽의 언어들이 많은데 독일어보다도 스페인어가 더 많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고등전문학교에 대해서 보면, 2 개 과정에서 응답이 있었으며 그 중 A 교에서는 중국어와 이태리어를, B 교에서는 중국어와 독일어를 개설하고 있었다.

단기대학은 9 개 과정에서 응답이 있었다. 결과는 표 7 과 같다.

표 7 단기대학의 영어 외의 외국어 개설 상황 (단위: 개)

언어명	과정 수	언어명	과정 수
중국어	8	이태리어	1
프랑스어	4	일본수화	1
독일어	3	포르투갈어	1
일본어	2		

단기대학의 전체적인 경향은 고등학교와 비슷하나 스페인어, 라틴어나 아랍어 등 고등학교에서 보였던 언어가 없어 종류가 한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 년제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 년제 대학은 95 개 과정에서 응답이 있었다. 집계 결과는 표 8 과 같다.

표 8 4년제 대학의 영어 외의 외국어 개설 상황 (단위: 개)

언어명	과정 수	언어명	과정 수
중국어	88	베트남어	2
독일어	75	일본수화	2
프랑스어	72	터키어	2
스페인어	47	고대 이집트 문자	1
러시아어	30	말레이어	1
일본어	24	몽골어	1
이태리어	18	미얀마어	1
아랍어	12	상해어	1
포르투갈어	9	체코어	1
인도네시아어	8	페르시아어	1
라틴어	7	폴란드어	1
태국어	7	헝가리어	1
그리스어	4	히브리어	1
고대 그리스어	3		

4년제 대학의 상황은 고등학교나 단기대학과 상당히 다르다. 그 특징은 크게 네 가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다양한 외국어 교육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외국어는 모두 27 가지로 매우 다양하다고, 두 번째는 아시아나 중동의 언어도 다양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어는 물론이거니와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비록 수는 많지 않더라도 다양한 외국어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라틴어나 고대 그리스어, 고대 이집트 문자 등 현재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으나 주로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일본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치는 학교가 일정 수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나 단기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 외국어로서의 일본어가 외국어 과목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모습을 지적할 수 있다.

4.5. 2020년도 한국어 수업 실시 상황에 대하여

4.5.1 학기제 등에 관한 확인

Q5에서는 2020년도 한국어 수업의 실시 상황에 대해 질문하였다.

Q5-1은 이어지는 질문에 앞서 1년의 수업을 몇 학기로 나눠서 운영하는지, 그리고 한 학기가 몇 주인지, 1회 수업 시간이 몇 분인지를 묻는 설문이다. 이는 차후에 각 학기에 실시된 수업 현황과 수강자 수 그리고 수업 내용, 진도 등에 대해 질문할 때 전제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물은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고등학교의 경우였다.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방학을 끼고 1학기, 2학기, 3학기로 나누며 성적도 학기마다 내는데 본 설문에서 확인하고자 한 것은 하나의 수업 과목을 한 단위로 다루는 기간이 연간 몇개로 나뉘어지는지였다.

예를 들어 50분 수업을 주 1회 1년 동안 실시해서 1단위가 인정된다면 통년제로 보고 응답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방학을 끼고 학기가 3학기로 나뉘어져 있어도 선택된 한국어 수업이 1년을 통해 실시되는 경우에는 통년제를 선택’해 달라고 설명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낀 학기 수를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었다. 이럴 경우 Q4-3의 최소 및 최대 학점 수와 Q5-3 이하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으로 보아 통년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년제’로 간주하였다. 집계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학기제의 분포 (단위: 개 과정)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단기대학	대학
통년제	72	1	0	5
2학기제	15	1	11	101
3학기제	0	0	0	2
4학기제	0	0	0	4

고등학교는 대부분 방학을 사이에 두고 3학기제로 운영되는데 응답한 87개 과정 중 72개 과정의 수업 운영상태를 보면 통년제로 판단되며, 15개 과정은 정확히 2학기제였다. 고등전문학교는 통년제가 1개 과정, 2학기제가 1개 과정이었으며, 단기대학은 응답한 11개 과정이 모두 2학기제였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응답한 112개 과정 중 101개 과정이 2학기제로 제일 많고, 5개 과정이 1학기제, 2개 과정이 3학기제, 4개 과정이 4학기제였다. 최근 교육 효과와 연구 효율을 올리기 위해 3학기제, 4학기제로 전환하는 대학이 나오고 있다.

한편 4개 과정은 통년제라고 응답했는데 각 대학 실러버스 등을 확인해 보니 대학 전체의 기본 학기제는 2학기제이지만 외국어 과목이나 특정 과목에 한해서 통년제 즉 학점 수여와 클래스 구성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기당 수업 주수는 학기제와 1회당 수업 시간 그리고 학점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여기서는 1회당 수업 시간에 대해서만 표 10에 정리하였다.

표 10 학교 종류별 수업 1 회당 시간 (단위: 개 과정)

수업 시간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단기대학	대학
45 분	13	0	0	0
50 분	65	0	0	0
70 분	0	0	0	2
80 분	0	1	0	2
90 분	0	1	10	98
100 분	0	0	1	9
105 분	0	0	0	1

고등학교는 50 분 수업이 가장 많고 45 분 수업인 학교도 있다. 고등전문학교는 80 분이 1 개 과정, 90 분이 1 개 과정이었다. 단기대학은 11 개 과정 중 1 개 과정만 100 분이고 나머지 10 개 과정이 90 분이었다. 4 년제 대학의 경우는 좀 더 다양한데 90 분 수업이 응답 수 112 개의 87.5%에 해당되는 98 개 과정이 90 분이고 80 분인 과정과 70 분인 과정 각각 2 개씩인데 이들은 모두 의료계 대학이다. 그 외에 100 분 수업인 과정이 9 개, 105 분인 과정도 1 개 있었다. 이들은 학기제와 한 학기 수업 주수의 조합됨으로써 수업 시수가 조정되어 학점 수와 연결되게 된다.

4.5.2. 수강 형태에 복수 패턴이 있는지의 확인

Q 5-2 는 Q 5-3 부터 Q 5-6 에 걸친 질문에 대해 몇 개 패턴으로 응답할 것인지를 묻는 설문이다. 몇 개 패턴이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학과나 코스에 따라 주 1 회만 수강하는 패턴과 주 2 회 수강하는 2 가지 패턴이 있는 경우 Q 5-3 ~ Q 5-6 의 질문에 기계적으로 응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서 응답하기 쉽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질문에 2 개 이상의 패턴이 있다고 답한 경우, 몇 개 패턴으로 나누어서 응답할 수 있게 된다.

Q 5-2 에서 이수 패턴이 복수라고 답한 학교는 표 11 과 같으며, 전체적인 학교 수와 과정 수를 정리하면 표 12 와 같다.

표 11 주당 수강 횟수 등의 패턴이 복수인 과정의 수 (단위: 개)

	2 개 패턴	3 개 패턴	4 개 패턴	5 개 패턴
고등학교	2	1	1	0
4 년제 대학	9	1	0	1

표 12 조사에 응답한 과정 수와 패턴 수 (단위: 개)

	고등학교		고등전문	단기대학		4년제 대학		
	교양	전공	학교·교양	교양	전공	교양	강화	전공
과정 수	84	1	1	9	2	102	13	15
패턴 수	90	1	1	9	2	116	14	15

이에 따라 Q 5-3~Q 5-6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과정 수가 아니라 표 12의 패턴 수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응답 수를 ‘건’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또한 Q 5-3~Q 5-6에서 주의할 것은 한국어 수강 개시 첫해를 1년차, 그 다음해를 2년차로 본다는 것이다. 즉, 2학년 때 수강이 시작될 경우에도 그때가 1년차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응답자가 오해를 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 또한 다른 응답 내용과 비추어 보고 오기입임으로 판단되면 이를 수정하여 집계하였다.

4.5.3. 주당 수업 횟수

Q5-3에서는 각 연차 및 학기 별로 주당 수강 횟수를 물었다. 또한 주당 수강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그들 수업이 서로 연계해서 이루어지는지 2회 이상의 수업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았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2학기제라 하더라도 사실상 같은 학생이 1년 동안 수강하고 1회당 수업 시간도 45~50분인데 비해, 대학의 경우 학기마다 수강자 수가 변동하는 경우가 많고, 수업 시간도 고등학교의 2배 가량 긴 70~105분인 등 전제 조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그 외로 나누어서 집계하기로 한다. 먼저 고등학교의 연차별 주당 수강 횟수는 표 13과 같다.

표 13 고등학교의 연차별 주당 수강 횟수 (단위: 건)

	1년차 제 1 학기	2년차 제 1 학기	3년차제 1 학기
주 1 회	7	1	1
주 2 회 [2 회 연동]	67 [51]	38 [26]	6 [5]
주 3 회 [3 회 연동]	4 [3]	4 [3]	-
주 4 회 [2~4 회 연동]	-	2 [2]	1 [1]
주 5 회	1	1	1

※1 회 수업이 45~60분임.

고등학교의 경우 주 2회 즉 주에 90~100분 수업을 1년 동안 개강하는 경우가 응답된 79건 중 67건(85%)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51건(76%)이 주 2회의 수업을 연동시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 2 회(90~100 분)의 수업을 2 년 동안 실시하는 경우가 38 건(48%), 3 년 동안 실시하는 경우가 9 건(11%)으로 많지는 않으나 확실한 한국어 실력 양성이 기대되는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3 년 동안 주 5 회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어 전공 코스를 설치한 1 건이었지만, 2 년 동안 주 4 회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2 건, 3 년차에 주 4 회 실시하는 경우가 1 건이다. 이들은 1 년차에 주 2 회 학습한 뒤 2 년차 또는 2 년차 이후 학습을 심화시키는 국제 코스를 둔 경우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0 년도에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업을 30~40 분밖에 확보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고 주석을 단 응답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석이 달린 것은 고등학교 뿐이었다.

다음은 고등학교 이외 즉 4 년제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의 데이터를 교양, 전공, 강화 등 과정 구분을 불문하고 주당 수업 횟수와 그 수업을 연동시켜 실시하는지 여부를 집계하였다. 고등학교와 달리 특히 1, 2 년차의 전기와 후기의 수업 현황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 년차는 전반(제 1 학기)과 후반(2 학기제 및 3 학기제인 경우에는 제 2 학기를, 4 학기제인 경우에는 제 3 학기를, 통년제인 경우에는 전반과 동일한 수를 데이터로 사용함)으로 나누어 표 14 에 제시한다.

표 14 4 년제 대학 · 단기대학 · 고등전문학교의 연차별 주당 수강 횟수 (단위: 건)

	1 년차 제 1 학기	1 년차 후반	2 년차 제 1 학기	2 년차 후반	3 년차 제 1 학기	4 년차 제 1 학기
주 1 회	55	47	41	32	25	17
주 1~2 회	6	3	3	1	4	4
주 1~3 회	-	-	1	-	-	-
주 1~4 회	-	-	2	-	-	2
주 2 회 [2 회 연동]	56 [38]	49 [34]	30 [18]	27 [15]	12 [2]	5 [-]
주 2~4 회	-	-	1	-	1	-
주 2~5 회	-	-	1	-	-	-
주 3 회 [2or3 회 연동]	6 [5]	7 [5]	11 [4]	10 [3]	2 [-]	- [-]
주 4 회 [2or3 회 연동]	10 [7]	10 [7]	8 [4]	6 [3]	6 [-]	1 [-]
주 5 회 [2or5 회 연동]	4 [3]	4 [1]	3 [2]	2 [-]	1 [-]	- [-]
주 6 회 [2or5 회 연동]	5 [4]	5 [4]	3 [2]	3 [-]	2 [-]	- [-]
주 7 회 [5 회 연동]	1	-	-	-	1	1
주 8 회	1	1	2	1	-	-
주 9 회	-	-	-	-	1	-
전원 유학	-	2	2	1	-	-

※1 회 수업은 70~105 분

1 년차 제 1 학기의 유효 응답은 144 건인데, 그 중 60 건(42%)이 주 1 회 또는 1~2 회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56 건(39%)이 주 2 회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 2 회의 수업 내용이 연동하는 학교는 38 건(26%)이었다.

1 년차 전반과 후반의 양상을 비교하면 전반에만 해당 과목이 설정되어 있거나 후반에는 전반과 다른 수강 방법이 채용되는 경우가 10~20%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 년차에 주당 수강 횟수가 느는 경우(예: 1 년차 2 회, 2 년차 3~4 회)가 있어 외국어 교육의 위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주 1 회 또는 주 2 회 그리고 그 다음이 주 4 회로 나타나고 있다. 주 4 회의 수업을 실시하는 10 건에는 교양·전공·강화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주 5 회 이상인 경우는 전공 또는 강화 뿐으로 이를 합하면 1 년차 제 1 학기에 11 건이 된다. 또한 1 년차 후반 혹은 2 년차에 수강생 전원이 유학을 가게 되어 있는 과정이 2 건씩 있었다.

4.5.4. 개설 클래스 수

다음으로 Q5-4. 학기별 개설 클래스 수를 집계한다. 여기서는 수강생 수가 몇백 명에 달할 수도 있는 4 년제 대학 교양 과정의 양상과, 많아야 몇십 명에 그치는 대학 외의 과정 즉 고등학교, 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 그리고 4 년제 대학 강화 및 전공 과정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겠다.

먼저 4 년제 대학 외의 교양 과정의 학기별 개설 클래스 수를 그림 14 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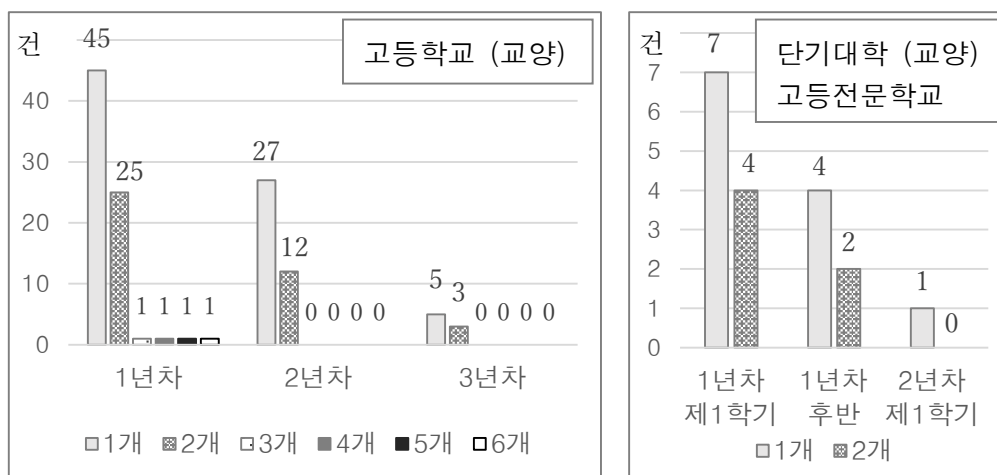


그림 14 학기별 개설 클래스 수

고등학교 교양 과정의 경우 1 년차, 2 년차 모두 클래스 수가 1 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클래스 수가 2 개인 경우가 1 개인 경우의 대체로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사실상 통년제이기 때문에 1 년을 통해 클래스 수의 증감이 없다.

한편 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의 경우 1년차 후반의 클래스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클래스 수 감소는 과목 설정 기간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수강생 수 감소에 따른 것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한국어 학습이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한편 1년차에 클래스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3년 동안 학습이 계속되는 경우도 소수나마 존재한다는 것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4년제 대학 교양 과정에서 학기마다 몇 개 클래스가 설정되었는지를 그림 15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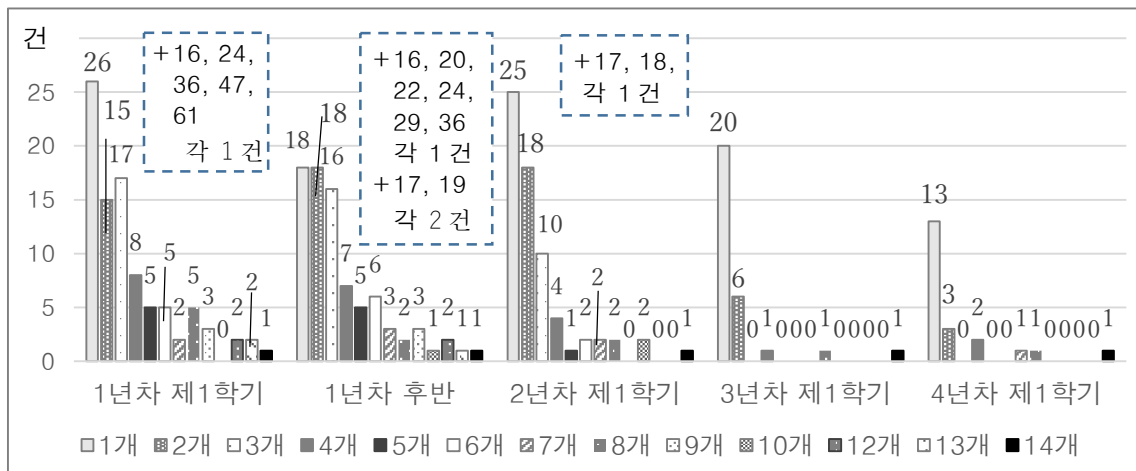


그림 15 학기별 개설 클래스 수(4년제 대학 교양)

패턴이 너무 다양해서 그림에 정리하기 어려워 클래스 수가 많은 경우를 파선 사각형 안에 따로 제시하였다. 1년차 제 1 학기에는 최대 61 클래스가 설치된 경우가 1 건이었으며, 그 외에 47클래스, 36클래스, 24클래스가 설치된 경우가 4년제 대학에서 각 1 건씩으로, 수강생이 매우 많은 대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1년차 후반에는 최대 36 클래스로 줄고 있으며, 그 외에 29 클래스, 24 클래스, 22 클래스가 설치된 경우가 각 1 건씩으로, 다음으로 논의할 수강생 수 감소에 따라 클래스 수도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1년차에는 많은 클래스를 개설하지만 2년차 이후에는 클래스 수가 크게 줄어 3년차, 4년차에는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4년제 대학의 강화 과정과 전공 과정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강화 과정은 12개 과정에서 응답이 있었고, 전공 과정은 13개 과정에서 응답이 있었다. 집계 결과는 그림 16과 그림 17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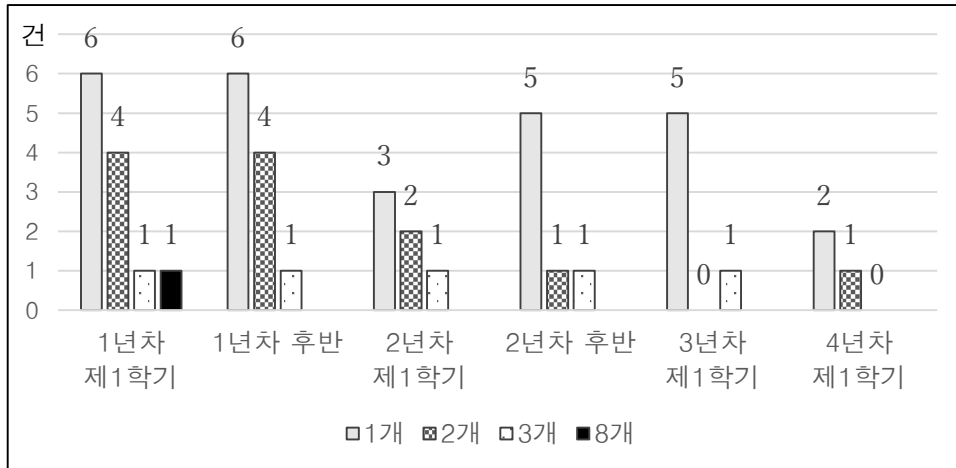


그림 16 학기별 개설 클래스 수 (4년제 대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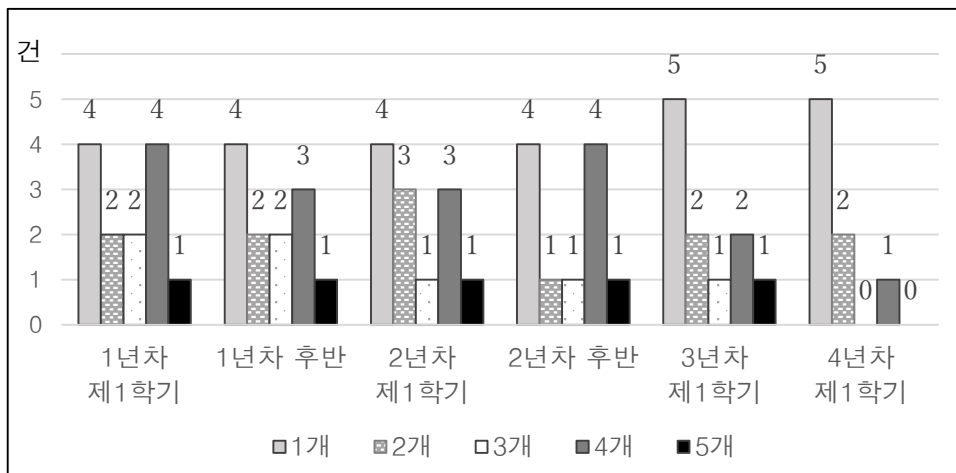


그림 17 학기별 개설 클래스 수 (4년제 대학 전공)

대학의 강화 과정과 전공 과정은 모두 한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시수를 한국어 교육에 할당하는데 4년간을 통해서 보면 강화 과정은 전체적으로 감소 경향이 보이는 데 비해 전공 과정에서는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4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강화 과정에서는 1, 2학년 때에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후반에는 원래의 전공 수업에 집중하게 하면서 한국어는 자율학습에 맡기는 것으로 보이며, 또 복수 과정에서 2년차에 6개월 혹은 1년간 한국으로 교환 유학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클래스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한편 전공 과정에서는 한국학 공부도 하면서 언어 학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컬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4.5.5. 수강자 수

다음으로 모든 학교 종류의 학년별 수강생 수를 집계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같은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수업이 2 개 이상인 경우에 그 수강자 수가 실수인지 연 인원 수 인지를 구별하는 것인데, 연 인원의 실제 인원 수 해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실수와 연 인원의 합계를 따로 집계하였다.

1, 2 년차는 클래스 수와 마찬가지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고등학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는 거의 다 실수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실수만을 제시하고, 대학의 경우는 실수와 연 인원뿐만 아니라 어느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여기서는 실수와 연 인원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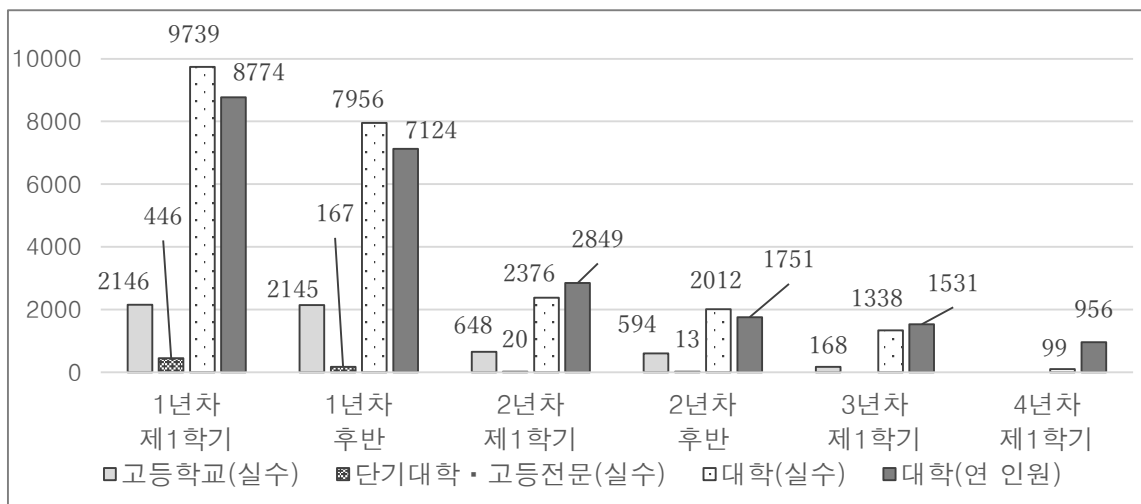


그림 18 각 학교 교양 과정의 학기별 수강자 수

교양 과정의 경우 모든 학교 종류에서 1년차와 2년차 격차가 심하다. 1년차 전반부터 2년차에 걸쳐 단기대학에서는 절반으로, 대학에서는 15% 정도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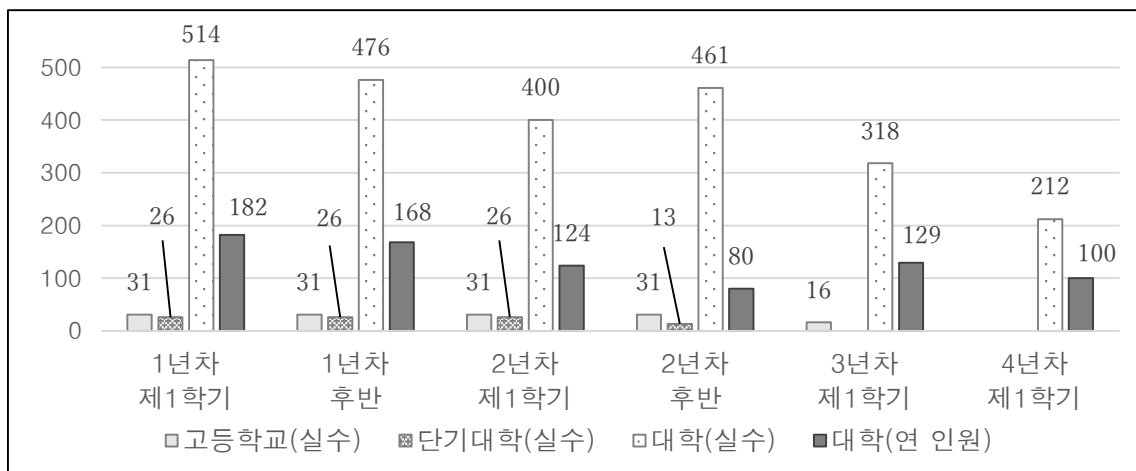


그림 19 고등학교·단기대학·대학의 전공 및 강화 과정의 학기별 한국어 수강자 수

전공 및 강화 과정의 경우 점차적인 감소 추세가 보이긴 하나 교양 과정과 같은 격감세는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본 조사에서 수강자 수를 구체적으로 응답해 준 과정은 고등학교가 91 건, 고등전문학교가 1 건, 단기대학이 11 건, 4 년제 대학이 144 건으로, 완벽하진 않으나, 각 과정의 각 학년 1 학기의 수강자 수를 정리하면 교양 과정은 표 15, 강화 및 교양 과정은 표 16 과 같다.

표 15 각 학교 종류의 교양 과정 각 연차 수강자 수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소계
고등학교(실수)	2,146	648	168	--	1,962
고등전문학교(실수)	30	0	--	--	30
단기대학(실수)	416	20	--	--	436
4 년제 대학(실수)	9,739	2,376	1,338	99	13,552
실수 합계	12,331	3,044	1,506	99	15,980
4 년제 대학(연 인원)	8,774	2,849	1,531	956	14,110

표 16 각 학교 종류의 강화 및 전공 과정 각 연차 수강자 수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소계
고등학교(실수)	31	31	16	--	78
단기대학(실수)	26	26		--	52
4 년제 강화(실수)	383	173	69	7	632
4 년제 전공(실수)	514	400	318	212	1,444
실수 합계	954	630	403	219	2,076
4 년제 전공(연 인원)	227	86	129	100	542

표 15 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2020 년도 본 조사 시 각 학교 교양 과정에는 실수로 15,980 명의 수강생이 실제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연 인원은 수강생 1 명이 여러 수업에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더할 수가 없으나 3 과목에 동시 등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가령 1 명이 2 과목에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2 로 나눈다면 약 7000 명, 이와 실수인 15,980 명을 더하면 약 23,000 명이 교양 한국어 과목을 수강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6 의 연 인원은 모두 전공인데 전공 학생이라면 3 과목 정도에 동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3분의 1 을 곱하여 2076 에 더한다면 2260 명이 전공 또는 강화 과정

한국어 과목에 등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5.6 사용 교재

Q5-6에서는 Q5-3~Q5-5에서 응답한 각 학기의 사용 교재의 서명과 해당 학기 중에 학습하는 범위를 물었다. 교재 및 학습 범위 정보는 각 과정의 여러 조건, 특히 시간 수와 대응하면서 학습 단계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상세 분석은 향후 과제로 하고 여기서는 각 과정의 전체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내에서 해당 교재가 몇 개 과정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제시하기로 한다.

학교 종류에 따라 혹은 학교에 따라서도 수업 시간과 수업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¹⁸ 여기서는 90분 수업을 1년 동안 실시한 45시간을 2단위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정 전체 시수를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그룹을 구분하였다. 아래 과정 수는 조건이 맞더라도 사용 교재 정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수이다.

- ①고등학교 중 전체 과정 시수가 10단위 이상인 2개교를 제외한 62개 과정¹⁹
- ②고등학교 이외의 학교 중 전체 과정 시수가 1~4단위인 52개 과정
- ③고등학교 이외의 학교 중 전체 과정 시수가 5~9단위인 28개 과정
- ④전체 과정 시수가 10~19단위 이상인 23개 과정
- ⑤전체 과정 시수가 20~40단위 이상인 17개 과정

여기서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종류와 전공, 강화, 교양 등의 과정 종류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교 및 과정 종류가 바로 과정 시수의 다과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과정에서 복수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계는 상기 과정 수를 상회한다. 또한 한 과정에서 하나의 교재를 사용했다고 하여 모든 내용을 취급한 것도 충분히 소화한 것은 아님은 물론이다. 특히 전체 과정 시수가 적을 경우 해당 교재의 일부만 사용했을 수 있음을 일러둔다.

¹⁸ 고등학교의 1학점은 50분 수업을 35주 실시한 시수(약 29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4년제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의 경우는 90분 수업을 15주 실시한 시수(22.5시간)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 그 시간 내에서 수학여행,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수업 외 활동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업 시간은 더 짧아져 대학 등의 수업 시간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또한 대학 등의 경우 수업 시간이 80분에서 105분까지 다양하나 1학점이 90분×15주(22.5시간)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시수라도 과목 구분에 따라서 학점 환산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점과 관계없이 시간 수를 기준으로 한다.

¹⁹ ①에 들어가는 학교의 과정 시수는 1~4단위가 대부분이고 5~6단위인 과정이 7개이다.

표 17 과정 전체 시수대별 사용 교재 일람 (①~⑤ 및 합계는 과정 수임)

① : 고등학교 1~6 단위, ② 그 외 1~4 단위, ③ 그 외 5~9 단위, ④ 10~19 단위, ⑤ 20~40 단위

일련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①	②	③	④	⑤	합계
1	高校生のための韓国朝鮮語Ⅰ 新・好きやねんハングルⅠ (高等学校韓国朝鮮語教育ネットワーク西ブロック「新・好きやねんハングルⅠ」編集チーム, 白帝社)	17					17
2	高校生のための韓国朝鮮語Ⅱ 好きやねんハングルⅡ (高等学校韓国朝鮮語教育ネットワーク西ブロック「新・好きやねんハングルⅠ」編集チーム, 白帝社)	6					6
3	おっ!ハングル (鄭賢熙·チョヒチョル, 駿河台出版社)	3					3
4	韓国語を話したいと思ったら はじめての韓国語会話 (キムミン스, 駿河台出版社)	1					1
5	楽しく学ぶ韓国語1 (康承恵·吉本一, 多楽園)	1					1
6	いちばん話せる韓国語 (長渡陽一, 新星出版社)	1					1
7	シンプル韓国語 入門編 (光化門韓国語スタジオ, アルク)	1					1
8	テーマで学ぶ韓国語(入門~初級) (金昌九, 駿河台出版社)	1					1
9	トライ韓国語1 (朴校熙·黄善英·崔昌玉·木村春菜, 白帝社)	1					1
10	書いて覚える!いちばんやさしい韓国語練習ノート 単語フレーズ編 (石田美智代監修, 永岡書店)	1					1
11	速読速聴韓国語読んで覚えて話せる単語 (山崎玲美奈, Z会)	1					1
12	韓国語文法ドリル初級から中級への1000題 (須賀井義教, 白水社)	1					1
13	最新チャレンジ!韓国語 (金順玉·阪堂千津子, 白水社)	13	4	1	1	1	20
14	もっとチャレンジ!韓国語 (金順玉·阪堂千津子, 白水社)	1		2	1		4
15	ちょこっとチャレンジ!韓国語 (金順玉·阪堂千津子, 白水社)		1	2		1	4
16	基礎から学ぶ韓国語講座 初級 (木内明, 国書刊行会)	9	3		4		16
17	基礎から学ぶ韓国語講座 中級 (木内明, 国書刊行会)	3			3		6
18	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 聞いて話そうⅠ (長谷川由起子, 白帝社)	1	4	3	1		9
19	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 聞いて話そうⅡ (長谷川由起子·張ユンヒャン, 白帝社)			4	3		7
20	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 読んで書こうⅠ (長谷川由起子, 白帝社)	1	1		1		3
21	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 読んで書こうⅡ (長谷川由起子, 白帝社)			1			1
22	韓国語の世界へ 入門編~コツコツ学び·カジュアルに話そう~ (李潤玉·酒匂ほか, 朝日出版社)	2	3	2		1	8
23	韓国語の世界へ 初中級編~コツコツ学び·カジュアルに話そう~ (李潤玉·酒匂ほか, 朝日出版社)		1	2		1	4
24	できる韓国語初級Ⅰ (李志暎, アスク)	3	2			2	7
25	できる韓国語初級Ⅰワークブック (李志暎, 辛昭靜, 新大久保語学院)	1	1				2

26	できる韓国語初級Ⅱ (李志暎・金鎮姫, アスク)	1	1	1		1	4
27	できる韓国語中級Ⅰ (李志暎, アスク)					2	2
28	できる韓国語中級Ⅱ (李志暎, アスク)					2	2
29	パランセ韓国語 初級 (金京子・喜多恵美子, 朝日出版社)	1	3	2			6
30	パランセ韓国語 会話入門 (金京子, 朝日出版社)		2				2
31	パランセ韓国語 中級 (金京子, 朝日出版社)				1		1
32	よくわかる韓国語 STEP1 (入佐信宏・文賢珠, 白帝社)	1	1	1			3
33	よくわかる韓国語 STEP2 (入佐信宏・金炫辰, 白帝社)			1	1		2
34	これで話せる韓国語 STEP1 (入佐信宏・金孝珍, 白帝社)	5	1				6
35	韓国語の初歩 (厳基珠・金天鶴・申鉉燮, 白水社)	1	1				2
36	アクティビティな韓国語 (鄭勛燮・申昌鉉, 朝日出版社)	1		1			2
37	パルン韓国語 初級 (鄭世桓・権来順・金永昊・呉正培・張基善, 朝日出版社)	1		1			2
38	新みんなの韓国語1 (中島仁・金珉秀・吉本一, 白帝社)	1		1			2
39	新みんなの韓国語2 (中島仁・金珉秀・吉本一, 白帝社)	1		1			2
40	読んでみよう韓国語 中級読解コース (金京子, 白水社)	1		1			2
41	韓国語へ旅しよう 初級 (李昌圭, 朝日出版社)		3				3
42	韓国語へ旅しよう 中級 (李昌圭, 朝日出版社)		1				1
43	韓国語会話 (鄭寅玉・申奎燮, 白帝社)		2				2
44	韓国語をはじめよう 初級 (李昌圭, 朝日出版社)		1				1
45	韓国語をはじめよう 中級 (李昌圭, 朝日出版社)		1				1
46	おはよう韓国語1 (崔柄珠, 朝日出版社)		1				1
47	おはよう韓国語2 (崔柄珠, 朝日出版社)		1				1
48	するする韓国語 (林河運・朴瑞庚, 朝日出版社)		1				1
49	韓国語スタートBOOK (木内明, ナツメ社)		1				1
50	韓国語会話の55の鉄則表現 (櫻井正明, 三修社)		1				1
51	新・韓国語レッスン初級 (金東漢,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1				1
52	やさしく学べる韓国語 初級 (金三順・北村唯司, 白帝社)		1				1
53	やってみよう! 韓国語 (崔在佑, 朝日出版社)		1				1
54	楽しい朝鮮語 (市場淳子)		1				1
55	スマート韓国語 (金京姫・金成妍・姜信一, 白帝社)		1				1
56	グループで楽しく学ぼう! 韓国語 (朴美子・崔相振, 朝日出版社)		2	1			3
57	しくみで学ぶ初級朝鮮語 (内山政春, 白水社)		2	1			3
58	最もシンプルな韓国語マニュアル (小倉紀蔵, アルク)		2	1			3

59	初級韓国朝鮮語教材 アリラン 改訂版 (熊谷明泰, 朝日出版社)		1	1	1		3
60	韓国語教本ハンゲルマダン (松崎真日・丁仁京・熊木勉・金昴京・李秀昞, 朝日出版社)		1	1		1	3
61	キャンパス韓国語, (曹美庚・李希姪, 白帝社)		1	1	1		3
62	はばたけ! 韓国語 Campus Corean (野間秀樹, 朝日出版社)		1	1	1		3
63	チョアヘヨ! 韓国語 初級 (金庚芬・丁仁京, 朝日出版社)		2		1		3
64	チョアヘヨ! 韓国語 中級 (金庚芬・丁仁京, 朝日出版社)		1		1		2
65	おいしい KOREAN レッスン (K.S.Jeong・S.S.Rung, 朝日出版社)		1		1	1	3
66	やさしく仕組みでわかる韓国語初級講義ノート (李昌圭, 白帝社)		1		1	1	3
67	やさしく仕組みでわかる韓国語中級 I 講義ノート (李昌圭, 白帝社)		1	1		1	3
68	教養韓国語 初級 (金智賢, 朝日出版社)		1			1	2
69	教養韓国語 中級 (金智賢 関由眞, 朝日出版社)		1			1	2
70	楽しく学ぶハンゲル2 (浜之上幸監修・姜英淑・金賢信・孟信美・印省熙・秋賢淑・林史樹, 白帝社)		1			1	2
71	初めての韓国語 (松尾勇・金善美, 同学社)		1			1	2
72	ふじのちゃんの 코리아語入門 会話編 (金情浩・中西恭子, 朝日出版社)		2		1		3
73	ふじのちゃんの 코리아語入門 文法編 (中西恭子, 朝日出版社)				1		1
74	実用韓国語 改訂版第3版 (코리아語教材研究会, 生協書籍部)			1			1
75	韓国社会を読む (曹美庚・林炫情・金眞, 朝日出版社)			1			1
76	かんたん! 韓国語 (金殷模・権来順・宋貞熹・張錫璟・文慶喆, 朝日出版社)			1			1
77	楽しく学べる韓国語 (李美賢・李貞旻, 白水社)			1			1
78	チェミナ韓国語 (李淑炫, 白帝社)			1			1
79	韓国語の時間ですよ (山田佳子・金世朗, 同学社)			1			1
80	今知りたい・韓国を読む (朴大王, 朝日出版社)			1			1
81	韓国語初級 (李昌圭, 白帝社)			1			1
82	マル韓国語 (韓必南, 全恵子, 朝日出版社)			1			1
83	かんたん! 韓国語 実践会話編 (金殷模・権来順・宋貞熹・張錫璟・文慶喆, 朝日出版社)			1			1
84	韓国語 初級でアクティビティ (金美仙・金美華, KOTOBATOMORI)			1			1
85	新・韓国語へのとびら (中島仁・金珉秀, 朝日出版社)			1			1
86	ことばの架け橋 初級 [改訂版] (生越直樹, 白帝社)			2		2	4
87	ことばの架け橋 中級 (生越直樹, 白帝社)			2			2
88	一冊目の韓国語 (五十嵐孔一, 東洋書店新社)			1		1	2
89	実用韓国語 (油谷幸利・コヨンジン, 白水社)			1	1	1	3

90	ことばの架け橋(精選版) (生越直樹・三ツ井崇・チョ・ヒチョル, 白帝社)				2		2
91	朝鮮語入門2 (油谷幸利, ひつじ書房)				1		1
92	表現のための中級韓国語 (中西恭子, 白水社)				1		1
93	マルブンソンで学ぶ韓国語初級 (李熙卿・白仁子, 白帝社)				1		1
94	Global Korean I 大学コースパック				1		1
95	実用韓国語2 改訂第3版 (コリア語教材研究会, 生協書籍部)				1		1
96	テーマで読む韓国語(中級～中上級編) (金昌九, 駿河台出版社)				1		1
97	プリティ・コリアン [パイロット版] (石坂浩一・佐々木正徳・金良淑・郭珍京・李和貞, 朝日出版社)				1		1
98	西南韓国語 初級 (西南学院大学韓国語講師陣, 朝日出版社)				1		1
99	もう初級者なんて言わせない韓国語中上級 (金秀晶・朴鐘厚, 白帝社)				1	1	2
100	昔話で学ぶ韓国語中級リーディング (金京子・高正子・伊地知紀子, アルク)				1	1	2
101	朝鮮語の入門 改訂版 (菅野裕臣著, 白水社)					2	2
102	韓国朝鮮語初級テキスト 根と幹 (生越直樹・生越まり子・池玟京, 朝日出版社)					2	2
103	韓国朝鮮語初級テキスト 花と実 (生越直樹・生越まり子・池玟京, 朝日出版社)					2	2
104	KBS ニュースで楽しく学ぶハングル時事 (浜之上幸監修・姜英宿・金賢信・孟信美ほか, 白帝社)					1	1
105	佳子のソウル留学から… (松尾勇・金善美・千田俊太郎, 同学社)					1	1
106	韓国語上級 (李昌圭, 白帝社)					1	1
107	韓国語の第一歩 中級 (金貞淑・姜昌萬, 三修社)					1	1
108	じゃんけんぽんー入門初級韓国語教材ー (松尾勇・金善美・千田俊太郎, 同学社)					1	1
109	場面で学ぶ韓国語ー韓国ドラマ「愛の群像」よりー (塩田今日子・印省熙, 朝日出版社)					1	1
110	ハングル初級 (邊恩田, 白水社)					1	1
111	ハングル ハングル I (高木丈也・金泰人, 朝日出版社)					1	1
112	ハングル ハングル II (高木丈也・金泰仁, 朝日出版社)					1	1
113	踏みだそう! 韓国語への第一歩 (宋美玲・印省熙・白寅英著, 白帝社)					1	1
114	間違いやすい韓国語表現 100 初級編 (油谷幸利, 白帝社)					1	1
115	間違いやすい韓国語表現 100 中級編 (油谷幸利, 白帝社)					1	1
116	よく使うことばで学ぶ韓国語 (イ・ユニ・水谷清佳, 朝日出版社)					1	1
117	多読多聴の韓国語・やさしい韓国語で読む韓国の昔ばなし (韓国語学習ジャーナル hana 編集部編, HANA)					1	1
118	多読多聴の韓国語・やさしい韓国語で読む世界の名作文学 (韓国語学習ジャーナル hana 編集部編, HANA)					1	1

119	韓国・朝鮮語発音 (松尾勇・金善美, 天理大学)					1	1
120	初級・中級韓国・朝鮮語会話教材 (松尾勇・金善美・千田俊太郎, 天理大学)					1	1
121	朝鮮語読本 (松尾勇・洪順錫, 天理大学)					1	1
122	韓国語概説 (李翊燮・李相億・蔡琬 著, 梅田博之 監修, 前田真彦 訳, 大修館書店)					1	1
123	日韓対照言語学入門 (油谷幸利, 白帝社)					1	1
124	カナタ KOREAN 初級1 (カナタ韓国語学院, 国書刊行会)		1		1		2
125	New 가나다 Korean for Japanese 初級1 (カナタ韓国語学院, 한글파크 출판사)	1	1	1	1	1	5
126	New 가나다 Korean for Japanese 初級2 (カナタ韓国語学院, 한글파크 출판사)			1	2		3
127	New 가나다 Korean for Japanese 中級1 (カナタ韓国語学院, 한글파크 출판사)				1	1	2
128	日本人のための韓国語ナビ初級1 (慶熙大学国際教育院, 国書刊行会)			1			1
129	日本人のための韓国語ナビ初級2 (慶熙大学国際教育院, 国書刊行会)			1			1
130	서강 NEW 한국어 1A Students Book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2	2
131	서강 NEW 한국어 2B Students Book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1					1
132	서강 NEW 한국어 4A Students Book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1	1
133	서강 NEW 한국어 4B Students Book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2	2
134	Easy Korean for Foreigners 1 (한국어교육문화원, Language Plus)				1	1	2
135	Easy Korean for Foreigners 2 (한국어교육문화원, Language Plus)				1	1	2
136	Easy Korean for Foreigners 3 (한국어교육문화원, Language Plus)				1	1	2
137	KOREAN SPEAKING-intermediate- Theme based (지현숙・오승영, 한글파크)					1	1
138	경희대 한국어 1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재편찬위원회, 형성출판사)				1		1
139	말하기 쉬운 한국어 4 (성균관어학원, 성균관대 출판부)				1		1
140	말하기 쉬운 한국어 8 (성균관어학원, 성균관대 출판부)					1	1
141	아름다운 한국어 1-3 일어판 (한국어교육개발연구원)				1		1
142	아름다운 한국어 3-1 (한국어교육개발원, 아름다운한국어학교)				1		1
143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2-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부)				1		1
144	연세한국어 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대학출판문화원)				1		1

14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글 파크)					1	1
14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②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글 파크)					1	1
147	이화 한국어 2-2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E PRESS)					2	2
148	세종한국어 1 (세종학당재단, 국립국어원)					1	1
149	세종한국어 2 (세종학당재단, 국립국어원)					1	1
150	세종한국어 3 (세종학당재단, 국립국어원)		1				1
151	재미있는 한국어 3 : Fun! Fun! Korean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교보문고)					1	1
152	재미있는 한국어 4 : Fun! Fun! Korean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교보문고)					1	1
153	실용 한국어 문법 상급 (안진명·선은희, 다락원)					1	1
15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장 쓰기의 모든 것 (박미경·김지연·권제은, 박이정)					1	1
155	쉽게 배우는 한국어 작문 1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글파크)					1	1
156	외국인을 위한 인문한국어 (허용, 다락원)					1	1
157	한국의 언어 (이익섭 외, 신구문화사)					1	1

표 17 은 일련번호 130 까지가 일본에서 제작된 교재, 131 이후는 한국에서 제작된 교재이며, 서명과 저자가 같은 시리즈 교재를 될 수 있는 대로 붙여서 배열하였다.

일본에서 제작된 교재 중 1~12 는 ①에서만 쓰인 교재, 41~55 는 ②에서만 쓰인 교재, 74~85 는 ③에서만 쓰인 교재, 90~98 은 ④에서만 쓰인 교재, 101~123 은 ⑤에서만 쓰인 교재이며, 그 사이 사이에는 앞뒤 그룹에서 함께 쓰인 교재를 배열하였다.

한국에서 출간된 교재도 위와 같이 ①~⑤의 각 그룹에서 많이 쓰이는 순으로 배열했으나 대부분이 과정 시수가 많은 과정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5 개 이상의 과정에서 쓰인 교재는 1, 2, 13, 16, 17, 18, 19, 22, 24, 29, 34, 125 의 모두 12 가지가 있으나, 절반 이상인 89 가지 교재가 한 과정에서만 사용되었으며, 두 과정에서만 사용된 33 가지를 합하면 전부 157 가지 교재의 77%에 달한다.

선행하는 한국어교육 현황 조사에서 일본에서 제작된 중·고급 교재의 부족이 자주 지적되었다. 표 17 에서 중·고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그룹 ④ 및 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본 제작 교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④과 ⑤에서는 한국에서 제작된 중급 교재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다.

4.6. 한국어 과목 담당 교원 구성

4.6.1 학기제 등에 관한 확인

Q6에서는 각 교육 기관의 한국어 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을 조사했다. 이 설문에서는 고등학교 교원의 직위는 다른 학교 종류와 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설문을 하였으며, 고등학교 외의 학교 종류의 교원 구성에 대한 조사 항목으로는 근무 형태(상근/비상근)와 모어(일본어/한국어/기타)를 설정하여 해당 항목의 교원 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기서는 집계 대상이 학교 수가 아닌 과정 수로, Q5에서 보았던 과정 내 수강 패턴에 의한 구분도 여기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집계 결과는 (1) 고등학교(교양 및 전공), (2) 고등전문학교 및 단기대학(교양 및 전공), (3) 4년제 대학(교양), (4) 4년제 대학(강화), (5) 4년제 대학(전공)으로 나누어 표 18에서 표 22에 걸쳐 제시한다. 고등학교와 단기대학에서 교양과 전공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이들 전공 과정은 과정 수도 각각 1개와 2개로 적을 뿐더러 교원 구성에 있어 구분할 만한 특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전문학교와 단기대학을 합친 것은 고등전문학교의 응답 수가 2개교로 적으며, 이들의 한국어 교육 과정이 모두 2년 이하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4년제 대학은 경우 교양과 강화 및 전공은 물론, 강화와 전공 사이에도 양상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들 두 과정을 나누었다. 표 18, 표 19 표 20 왼쪽 표에서는 근무 형태와 모어의 구성이 같은 과정이 복수 있는 경우 그 개수를 ‘과정 수’ 란에 나타냈다.

먼저 표 18 고등학교의 집계 결과를 살펴보겠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식 채용된 ‘교유(敎諭: 한국의 교원에 해당함)’가 있는 과정이 응답이 있었던 81개 과정 중 27개 과정으로, 정확히 3분의 1이었다. 직위는 교유와 다르나 근무 형태는 교유와 유사한 상근 강사가 있는 경우까지 합하면 30개 과정이다. ALT(Assistant Language Teacher)란 주로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원어민의 발음이나 행동양식에 익숙해지기 위해 도도부현이 해외 공관에 의뢰해서 전형하여 채용하는 제도에 의한 원어민 교사로, 한국어 ALT를 활용하는 지역도 있다. 본 조사에서 ALT 14명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교유, 상근 강사, ALT 등 안정된 채용 형태가 아닌 비상근 강사만으로 운영되는 과정이 47개였다.

모어별로 보면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교유가 27명, 상근 강사가 4명, 비상근 강사가 40명, 모두 71명이었으며,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교유가 6명, 상근 강사가 1명, ALT가 14명, 비상근 강사가 40명, 모두 61명이었다. 모어가 일본어도 한국어도 아닌 ‘그 외’²⁰⁾ 언어인 상근 강사가 4명, 비상근 강사가 1명, 모두 5명이었다.

²⁰⁾ ‘그 외’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인지 쓰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입은 없었다.

표 18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근무 형태 및 모어 분포 현황

교유 수		상근 강사 수			ALT 수	비상근 강사 수			과정 수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그 외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그 외	
2		1		1			1		1
2					1				2
2						2	1		1
2						1			1
	2						1		1
1		1		1	3				1
1					1	1			1
1					1				4
1							2		1
1							1		6
1									4
	1						1		1
	1								3
		1				1			1
		1		1			1		1
			1	1			1		1
					1	2	2		1
					1	1			3
						2	1		1
						2			2
						1	1		3
							1	1	1
						1			21
							1		19

표 19 고등전문학교 및 단기대학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의 근무 형태 및 모어 구성

상근 교원 수			비상근 교원 수			과정 수
일본어	한국어	그 외	일본어	한국어	그 외	
1						1
	1					2
	1			1		1
		1				1
				1		8

표 19에 제시한 고등전문학교 및 단기대학의 경우를 보면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은 상근 교원 1명 뿐으로, 상근 교원과 비상근 교원 모두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4년제 대학 교양 과정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의 근무 형태 및 모어 구성

상근 교원 수			비상근 교원 수			과정 수
일본어	한국어	그 외	일본어	한국어	그 외	
3	4		4	10		1
3	2		11	20		1
3	1		6	9		1
3			5	20		1
	3		4	13		1
1	2		3	6		1
1	2		1	7		1
2	1		3	3		1
2	1		2	3		1
1	1		9	12		1
1	1		3	8		3
1	1		5	5		1
1	1		2	4		1
2			1	2		1
	2			2		2
2				1		1
	2			1		1
1	1		1	1		2
1			4	6		1
1			2	5		1
1			4	3		1
1			3	3		1
1				5		1
1				2		3
1			1			1
1				5		5
	1		2	13		1
	1		3	9		1
	1			6		1
	1		1	5		1
	1		1	4		1
	1		2	3		1
	1			3		2
	1		1	2		3
	1		1	1		2
	1			2		4
	1			1		1
		1		1		1
		1			1	1

비상근 교원 없는 과정

상근 교원 수		과정 수
일본어	한국어	
1	1	1
	2	1
1		1
	1	3

상근 교원 없는 과정

비상근 교원 수		과정 수
일본어	한국어	
4	5	1
	7	1
	4	3
1	3	2
1	2	1
	3	2
	2	4
1	1	3
	1	11
1		6

표 20에 나타난 4년제 대학의 경우 96개 과정에서 응답이 있었던 가운데 상근 교원이 없는 과정이 34개(35.4%)였다. 본 조사에서 전임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구분 없이 상근 교원의 인원 수를 물었기 때문에 오구리(2005)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으나, 오구리(2005)에서 전임 교원이 없는 비율이 67.8%, 기간제 강사가 없는 비율이 76.0%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거의 역전하듯이 상근 교원의 비율이 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어별로 보면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상근 교원이 46명, 비상근 교원이 111명, 모두 157명이었으며,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상근 교원이 56명, 비상근 교원이 323명, 모두 379명이었다. 특히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비상근 교원이 20인 과정이 2개, 그 중 한 과정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비상근 교원이 11명으로 도합 30명을 넘는 등, 비상근 교원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과정이 여럿 눈에 띈다. ‘그 외’ 언어를 모어로 하는 상근 교원은 2명(1명은 중국어하고 기입했음), 비상근 교원은 1명, 모두 3명이었다. 상근, 비상근을 불문하고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만 있는 과정은 8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만 있는 과정은 34개였다.

표 21 4년제 대학 강화 과정

상근 교원 수		비상근 교원 수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3	2	6	3
2	1	2	3
1	2	3	6
1	1		4
1			4
1		1	2
1	1	2	1
	2		4
	1		3
		1	1
			2
			1

표 22 4년제 대학 전공 과정

상근 교원 수		비상근 교원 수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4	2	6	5
4	2	2	2
4	2	2	1
3	3	3	3
2			1
1	5	2	5
	3	4	13
1	3		4
1	3	1	2
1	2	1	1
1	2		1
1	1	3	5
1	1	1	2
1		2	6
1		1	6

표 21 및 표 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4년제 대학의 강화 과정은 12개 과정이 응답했는데 그 중 상근 교원이 없는 과정이 3개 있었다. 반면에 전공 과정의 경우 응답한 15개 과정 모두에 상근 교원이 있었다.

상근 비상근을 불문하고 모어별로 보면 강화 과정에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만 있는 과정은 4 개인데 비해 전공 과정의 경우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만이 있는 과정은 없었다. 그리고 두 과정 모두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만 있는 과정은 없었다.

4.7. 한국학 관련 수업에 대하여

Q7에서는 한국어 이외의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등에 관한 수업 즉 한국학 관련 수업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인지를 물어보았다.

4.7.1. 한국어 학습자가 수강할 수 있는 한국학 수업에 대하여

Q7-1에서는 해당 과정의 수강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 등에 관한 강의 등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한국어 수업 이외에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 등에 관한 수업 즉 한국학 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수를 먼저 학교 종류별로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20와 같다. 이 문항에 대해 고등전문학교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종류별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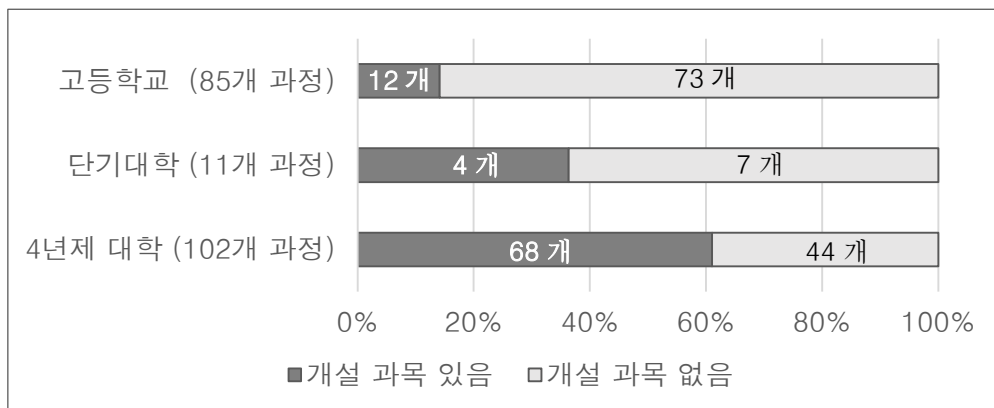


그림 20 학교 종류별 한국학 과목 개설 여부 현황

고등학교, 단기대학, 4년제 대학으로 올라가면서 한국학 관련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에는 한국학 교원이 없는 데다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학 계통 과목이나 예술 계통 과목 내에서 간단히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단기대학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이를 그대로 단기간에 일정 교양과 기술을 배양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학까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림의 데이터 내역을 학교 종류 및 과정 별로, 개설 과목 수가 1 과목인 학교, 2-5과목인 학교, 6-10과목인 학교, 11과목 이상인 학교로 나누어 각각 학교 수를 제시하면 그림 2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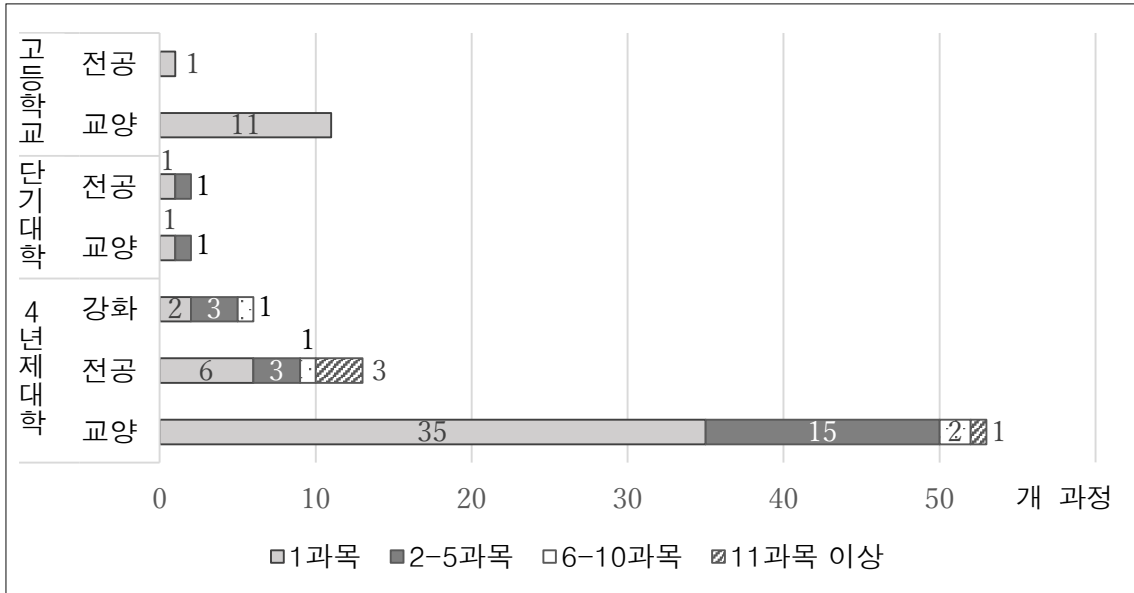


그림 21 학교 종류 및 과정 별 한국학 관련 수업 설치 과목 수의 분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단기대학, 4년제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한국학 관련 과목 개설 비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단기대학에서는 전부 개설 수가 1개 뿐인 것에 비해 4년제 대학에서는 한국학 관련 수업 개설 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화 및 전공 과정인데도 한국학 관련 과목 개설 수가 1개뿐인 대학도 있긴 하나 아무래도 강화와 전공 과정에서 개설 과목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교양 과정인 경우에도 3분의 1 정도가 2과목 이상의 한국학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는 대학 전체 113개 과정 중 18개 과정(16%)에 불과하긴 하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여러 개의 한국학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 전공 과정에 설치된 한국학 과목을 한국어 비전공 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과목과 별도로 설치된 한국학 관련 수업을 표 23에 학교 종류와 과정 종류별로 열거한다.

표 23 학교 종류와 과정 종류별 한국학 관련 과목 내역 일람

고등학교·교양	映画から考える韓国の現代, 韓国の現代、日本との関わり, コリアンカルチャー, 韓国朝鮮語文化理解, 朝鮮文化演習, アジア地誌
고등학교·전공	韓国文化, 時事教養
단기대학·교양	比較文化, 韓国の言語と文化
단기대학·전공	アジアの文化と社会, 教養ゼミ (韓国学), 卒業研究 I (韓国学), 韓国文化、韓国の歴史
4년제 대학 · 교양	韓国・朝鮮語文化, 韓国・朝鮮語文化演習, 韓国・朝鮮語言語演習, 韓国研究, 韓国の社会と文化, 文化論, 韓国文化論, アジアの歴史と文化, 韓国語(朝鮮語)文化, 韓国語で読む文化と社会, 世界の多極化と異文化理解, 韓国語学校文法, 中期朝鮮語入門, 日朝文法対照研究入門, テーマで読む韓国社会, 韓国語学概論, 現場の小説を読む, 訓民正音研究, 現代朝鮮語の語尾助詞研究, 現代韓国の文化と社会, 朝鮮の宗教と社会, 比較宗教論研究, 朝鮮の歴史と文化, 文献演習(韓国語), 韓国文化論, 朝鮮文化論, 朝鮮半島の歴史、朝鮮半島事情, 現代코리아論, 現代韓国 IT 文化, 韓国の社会と文化, 韓国の言語と文化, 朝鮮政治外交史, 朝鮮研究, 朝鮮近現代史, 観光韓国語, 地域研究(アジア), 外国事情 A(アジア), 朝鮮語圏の文化, 朝鮮語圏の社会, 코리아学入門, 아시아史概説, 아시아歴史文化論, 朝鮮言語文化論, 朝鮮半島の社会と文化, 現代韓国社会論, 東アジア史, 韓国社会論演習, 日韓関係論, 韓国言語文化論, 韓国言語文化演習, , 韓国・朝鮮学入門, 朝鮮半島の美術, 現代朝鮮半島事情, 国際文化特殊講義, 東アジアの文化, 海外文化研修, 韓国地域研究, 코리아語文化事情, 言語文化原典演習(코리아語), 現代地域事情・上級講読(코리아語圏), 海外文化研究, 初年次ゼミナール 韓国社会・文化を紐解く, 아시아の言語と文化, 아시아文化研究-韓国・朝鮮文化, 日韓対照言語研究, 国際文化情報 C(韓国朝鮮語圏), 朝鮮半島政治外交論, 朝鮮半島社会論, 韓国語フォーラム, 朝鮮史学講義, 朝鮮史学演習, 朝鮮史学講読, 朝鮮歴史文化論講義, 朝鮮歴史文化論演習, 韓国の社会と文化, 朝鮮史, 日朝関係史, 朝鮮政治史, 東アジア文化交流論, 韓国の社会と文化, 아시아の文学,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論, 韓流の歴史と意味, 韓国・朝鮮史, 韓国・朝鮮文化論, 韓国の言語と文化, 国際理解課題研究
4년제 대학 · 강화	日韓・日朝関係史, 比較民俗文化論, 韓国社会論, 韓国特殊研究(韓国メディア論), 韓国特殊研究(韓国前近代史), 日韓交流史, 韓国特殊研究(韓国の芸術と文化), 韓国特殊研究(韓国政治論), 韓国・北朝鮮の政治・経済・社会, 留学前ゼミナール, 韓国社会文化論, 韓国地域研究, 세미나

4년제 대학 · 전공	韓国事情, 韓国の社会と文化, セミナー, 東アジア近現代史, 韓国朝鮮語 読解, 原典講読, 韓国史概論, 韓国語学校文法, 中期朝鮮語入門, 日朝文法 対照研究入門, テーマで読む韓国社会, 韓国語学概論, 現場の小説を読む, 訓民正音研究, 現代朝鮮語の語尾助詞研究, 現代韓国の文化と社会, 朝鮮 の宗教と社会, 比較宗教論研究, 韓国文学史, 韓国文学研究, 朝鮮文化論, 朝鮮半島の社会と文化, 現代韓国社会論, 東アジア史, 韓国社会論演習, 日韓関係論, 韓国言語文化論, 韓国言語文化演習, 地域文化(韓国), 現代 韓国の理解, 現代韓国事情, 韓国・朝鮮入門, 韓国・朝鮮文学概論, 韓国・ 朝鮮史, 韓国・朝鮮社会文化論, 韓国・朝鮮文化交流史, 韓国・朝鮮事情, 東アジア言語文化専攻入門, 日韓文化交流史, 中国・韓国学入門演習, 韓 国学基礎演習, 韓国言語文化概説, 韓国学文献講読, 韓国事情概説, 韓国 事情特講, 韓国言語文化講読, 韓国言語文化特講, 韓国学演習, 韓国文化 演習,
----------------	---

4.7.2. 한국학 전공 대학원 과정 개설 대학 현황

Q7-2 에서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국학 전공 대학원 과정 개설 대학 현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설문은 (1) 석사(박사 전기) 과정이 있는지, (2) 박사(박사 후기) 과정이 있는지와 (3) 석·박사 과정이 있으면 어떤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지, 언어, 문학,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사상, 그 외 중에서 체크를 하도록 하였다. 그 외라고 답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구 분야를 쓰도록 하였다. (1) 및 (2)의 응답 결과를 표 24 에 제시한다. 단, 여기서는 과정이 아닌 대학 단위로 집계하였다.

표 24 한국학 전공 대학원 과정이 있는 대학 (단위: 개교)

	전공 과정이 있는 대학(15)	강화 과정이 있는 대학(13)	전공, 강화 과정이 없는 대학(102)	합계
석사 과정 개설 대학	3	3	9	15
박사 과정 개설 대학	2	3	5	10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4년제 대학 가운데 한국학 관련 석사과정이 개설된 학교는 15 개교, 박사 과정은 10 개교이다. 내역을 보면 학부 과정에 전공 과정이나 강화 과정이 있는 학교에 반드시 대학원 한국학 전공 석·박사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의 응답 결과, 즉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 가능한 분야는 그림 22 와 같다. 한 과정이 복수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합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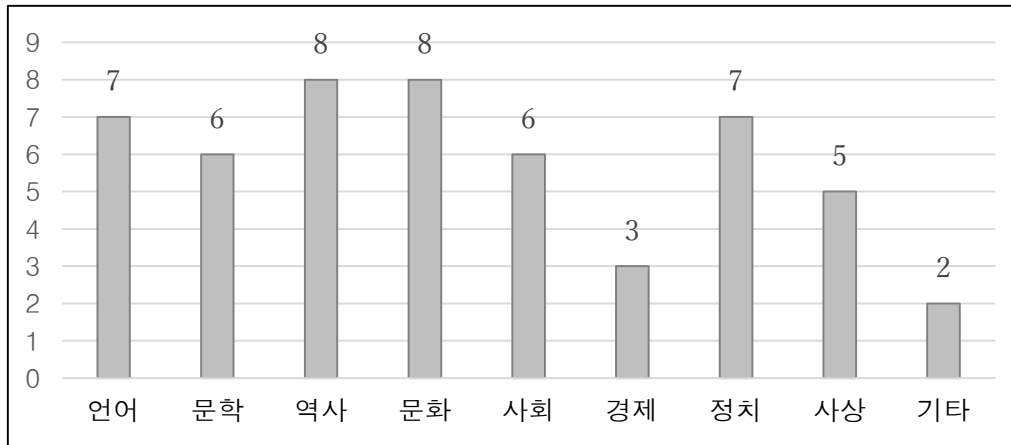


그림 22 각 분야 연구가 가능한 대학원 과정의 수 (단위: 개교)

언어학, 문학, 역사학 등 인문학 분야와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분야 고르게 연구분야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에서도 한국어 전공이나 강화 과정이 없는 대학의 대학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의 한국학이 역사학이나 정치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일부로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부의 한국어 전공이나 강화 과정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8.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Q8)

Q8에서는 각 학교 과정을 수료한 뒤 한국어 또는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학습 또는 연구하기 위한 진로를 과거 5년 동안에 어느 정도 선택하는지, 응답자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교 종류별로 수료 후 가능한 진로가 다르기 때문에 설문 항목이 학교 종류별로 해당 항목만 제시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 문항은 다음 (1)~(7)이며, 각 문항마다 과거 5년 동안에 해당하는 수강생이 ①1~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②5~1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③11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④그런 수강생은 없었다, ⑤모르겠다의 5가지로 구분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 (1) 일본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어·한국학 관련 연구함(이하, 일본 대학원 진학)
- (2) 일본 대학의 한국어·한국학 관련 학부 편입학(이하, 일본 대학 편입학)
- (3) 일본 대학의 한국어·한국학 관련 학부 진학(이하, 일본 대학 진학)
- (4) 한국 대학원 진학(진학을 목적으로 한 어학연수 포함)(이하, 한국 대학원 진학)

- (5) 한국 대학으로 편입학(편입학을 목적으로 한 어학연수 포함) (이하, 한국 대학 편입학)
- (6) 한국 대학 진학(진학을 목적으로 한 어학연수 포함) (이하, 한국 대학 진학)
- (7) 한국의 한국어 연수기관에 유학 (연수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포함) (이하, 한국 어학 연수)

응답 결과를 표 25 에 제시한다. 단, 선택지 ④ 및 ⑤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응답자가 수강생의 진로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 ④ 혹은 ⑤을 선택한 응답률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70%가 넘었기 때문이다. 이 문항은 응답자가 수강생의 한국어·한국학 관련 진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며, 여기서는 ①~③의 분포 경향만 확인하는 데 머무르기로 한다. 참고로 ①~③을 선택한 응답의 수를 ‘학교 및 과정’란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25 과정 수료 후의 한국어·한국학 관련 진로 선택 상황 (단위: 개 과정)

학교 및 과정	해당 수강생 수	(1) 일본 대학원 진학	(2) 일본 대학 편입학	(3) 일본 대학 진학	(4) 한국 대학원 진학	(5) 한국 대학 편입학	(6) 한국 대학 진학	(7) 한국 어학 연수
고등학교 교양 (45)	① 1~4명			25			24	29
	② 5~10명			9			1	1
	③ 11명 이상			3				1
고등학교 전공 (1)	① 1~4명							
	② 5~10명							
	③ 11명 이상			1			1	1
단기대학 교양 (3)	① 1~4명		1				1	2
	② 5~10명							
	③ 11명 이상						1	1
단기대학 전공 (2)	① 1~4명		1					
	② 5~10명						1	
	③ 11명 이상							1
4년제 교양 (37)	① 1~4명	10	1	5	20	5	6	20
	② 5~10명	1						6
	③ 11명 이상				1			7
4년제 강화 (4)	① 1~4명				1	1	1	2
	② 5~10명	1						
	③ 11명 이상							1
4년제 전공 (13)	① 1~4명	4	1		11	5	2	5
	② 5~10명					1		
	③ 11명 이상							2

고등학교 교양 과정의 경우, 응답의 절반 이상에서 과거 5년 동안에 한국학 관련

(3)일본 대학 진학 또는 (6)한국 대학 진학을 한 졸업생이 1~4 명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10 명 또는 11 명 이상이 일본 대학에 진학했다는 과정이 각각 9 개와 3 개나 되고 (7)한국 어학 연수를 나간 학생이 흔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고등학교 전공 과정은 1 개 뿐이지만 (3)일본 대학 진학, (6)한국 대학 진학, (7)한국 어학 연수 모두 과거 5 년간에 11 명 이상이 있었다고 하니 한국어·한국학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고등전문학교의 응답은 모두 ④ 또는 ⑤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단기대학 교양 과정 또한 ④ 또는 ⑤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2)일본 대학의 한국어한국학 전공 과정으로 진학한 학생이 1~4 명 있었다고 답한 과정이 1 개, (6)한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5 년동안에 1~4 명 있었다고 답한 과정과 11 명 이상 있었다고 답한 과정이 1 개씩이었으며, (7)한국 어학 연수를 간 졸업생이 있었다고 답한 과정도 3 개 있었다.

4 년제 대학 교양 과정의 경우 응답한 과정의 50%를 넘는 과정에 (4)한국 대학으로 진학한 졸업생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7)어학 연수에 이르러서는 무려 90%가까운 과정에서 과거에 해당 학생이 있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4 년제 대학의 강화 및 전공 과정 모두 한국의 대학원 혹은 대학으로 진학 혹은 편입학한 학생이 일본 국내 대학원, 대학보다 많았으며, 어학 연수를 나간 졸업생도 흔했음을 알 수 있다.

보충 설명란에는 ‘해당 진로를 희망한 학생은 있었지만, 실제 진학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전체 학부에 관련된 사항이라 다 파악할 수 없었다’, ‘연수기관에 유학한 학생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몇 명인지는 모른다’,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응답하였다’ 등의 기술이 있었다. 전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한 학생의 진로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진로의 정확한 파악이 아니라 응답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으며, 선택지를 가능한 한 단순화시켜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기도 하였으나 ‘희망자는 있었지만, 실제 진학했는지는 알 수 없다’, 혹은 ‘해당 학생이 있었으나 정확한 인원 수는 알 수 없다’와 같은 선택지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점을 향후 과제로 삼는다.

4.9. 외부 한국어 시험에 대하여

Q9 에서는 한국어 교육 담당자가 수강생들에게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을 볼 것을 권장하는지, 권장한다면 어떤 시험을 권장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학교 조직 외에서 실시되는 한국어 시험으로는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특화된 ‘한글’능력검정시험(이하, 한글검정)과 전 세계에서 한국 교육부가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이하, TOPIK)을 들 수 있는데 그 외의 시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에서는 한글검정에 대해, (2)에서는 TOPIK 에 대해, (3)에서는 그 외 시험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선택지는 ‘①거의 모든 수강생에게 응시하게 한다, ②응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③권장하고 있지 않으나 응시하는 학생도 있다, ④권장도 하지 않고 응시하지도 않는다, ⑤학생들이 그 시험에 응시하는지 모르겠다’이다.

집계 결과는 고등학교 교양 과정에 대해 그림 23 에, 단기대학 교양 과정과 고등전문학교에 대해서는 합쳐서 그림 24 에, 고등학교와 단기대학의 전공 과정에 대해서는 그림 25, 4 년제 대학 교양 과정에 대해서는 그림 26, 강화 과정에 대해 그림 27, 전공 과정에 대해 그림 28 에 정리하였다. 선택지 ④와 ⑤는 이들 시험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점이 공통인 것으로 보고 하나로 묶었다.

먼저 고등학교 교양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한글검정에 대해서는 84 개 과정 중 절반에 해당하는 42 개 과정이 적극적으로 권장(21 개)하거나 권장하지는 않으나 수강생이 자진해서 응시한다(21 개)고 답했다. TOPIK 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 18 개, 자진해서 응시(21 개) 등 한글검정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23 에서 그림 31 까지 비교해 보면 고등학교 교양 과정에서 ‘그 외’ 시험을 전원 응시시켰거나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3 과정이 응답 보충설명란에 ‘그 외’ 시험이란 고등학생용 초급 한국어시험 ²¹ 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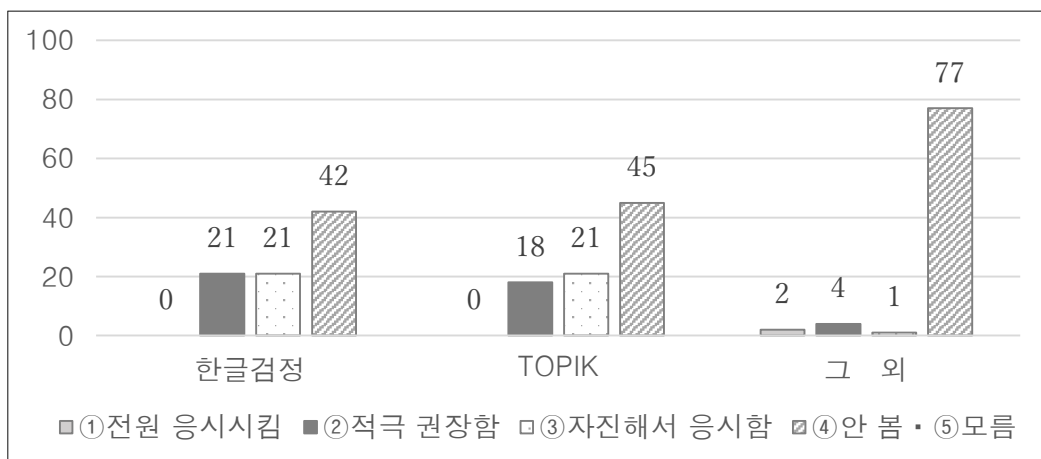


그림 23 고등학교(교양) 한국어 학습자의 외부 시험 응시 관련 현황

²¹ 고등학교 한국어 교원 단체 유지들이 2019 년부터 기획하고, 모의시험으로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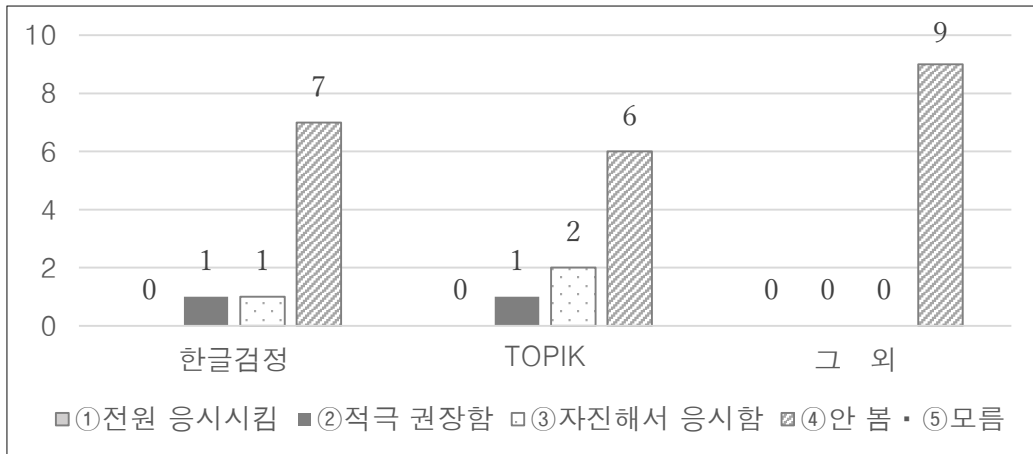


그림 24 단기대학(교양) 및 고등전문학교 한국어 학습자의 외부 시험 응시 관련 현황

단기대학의 교양 과정과 고등전문학교에서는 한글검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과정이 1 개, 수강생이 자진해서 응시한다는 과정이 1 개이며, TOPIK 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과정이 1 개, 수강생이 자진해서 응시한다는 과정이 2 개였다.

고등학교와 단기대학의 전공 과정의 경우에는 한글검정을 적극 권장하는 과정과 TOPIK 을 적극 권장하는 과정이 각각 1 개씩인데, TOPIK 을 전원 응시시킨다는 과정이 1 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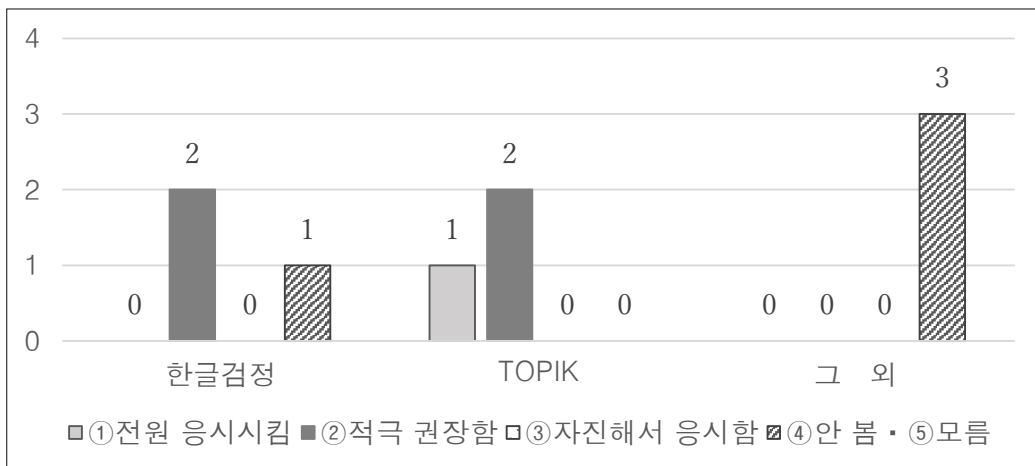


그림 25 고등학교(전공) 및 단기대학(전공) 한국어 학습자의 외부 시험 응시 관련 현황

다음으로 4 년제 대학 교양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외부 시험을 전원 응시시킨다는 과정은 전혀 없으며, 적극 권장하는 과정이 한글검정은 26 개, TOPIK 은 32 개로 TOPIK 을 권장하는 과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 권장하지 않아도 수강생이 자진해서 응시한다는 과정 또한 한글검정은 28 개, TOPIK 은 31 개로, TOPIK 이 우세했다.

한글검정은 어렵게 합격해도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어, 한국에 유학 간다든지 한국계 기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TOPIK 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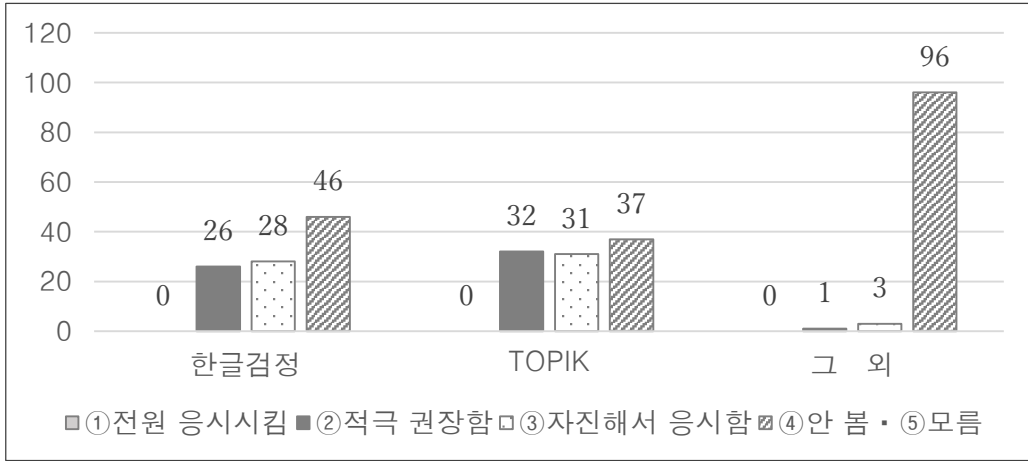


그림 26 4년제 대학(교양) 한국어 학습자의 외부 시험 응시 관련 현황

‘그 외’ 시험을 적극 권장한다는 과정이 1 개, 수강생이 자진해서 응시한다는 과정이 3 개 있었으나 구체적인 시험명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4년제 대학의 강화 과정과 전공 과정의 집계 결과를 그림 27 과 그림 28 에 제시한다. 한글검정, TOPIK 다 전원 응시시킨다는 과정이 각각 1 개씩 있으며, 적극 권장한다는 과정은 한글검정보다 TOPIK 이 우세하다는 경향이 교양 과정보다 더 확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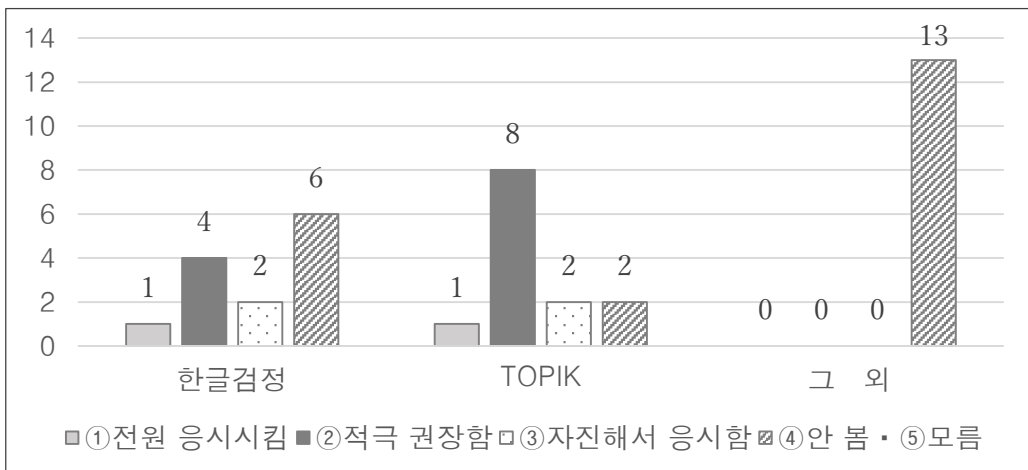


그림 27 4년제 대학(강화) 한국어 학습자의 외부 시험 응시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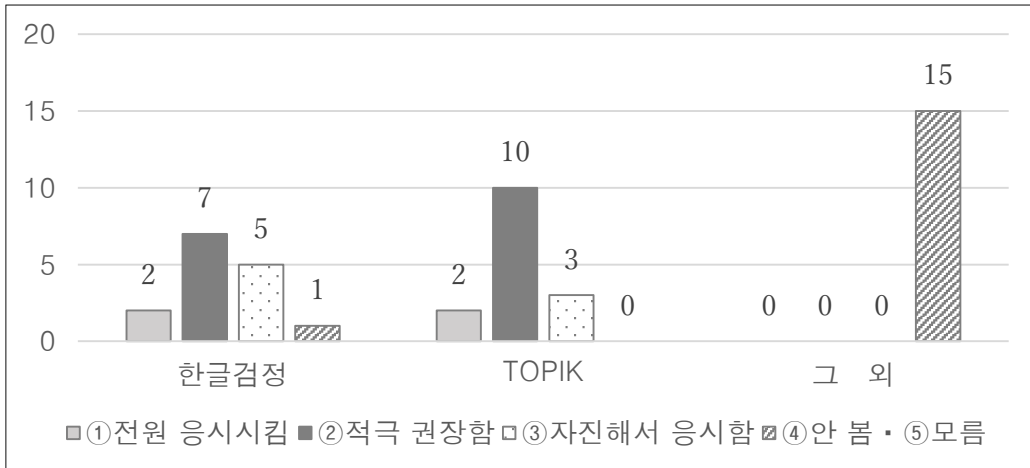


그림 28 4년제 대학(전공) 한국어 학습자의 외부 시험 응시 관련 현황

Q9 (4)에서는 이들 외부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점 인정 등의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고, 선택지는 ‘①수험 결과가 성적 평가에 반영된다, ②합격한 급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③학부·학과에 따라서는 학점 인정 제도가 있다, ④그런 제도가 없다’로 하였다. 그림 29에는 모든 학교 종류의 교양 과정의 집계 결과를, 그림 30에는 고등학교 전공 과정, 단기대학 전공 과정, 4년제 대학의 전공과 강화 과정의 집계 결과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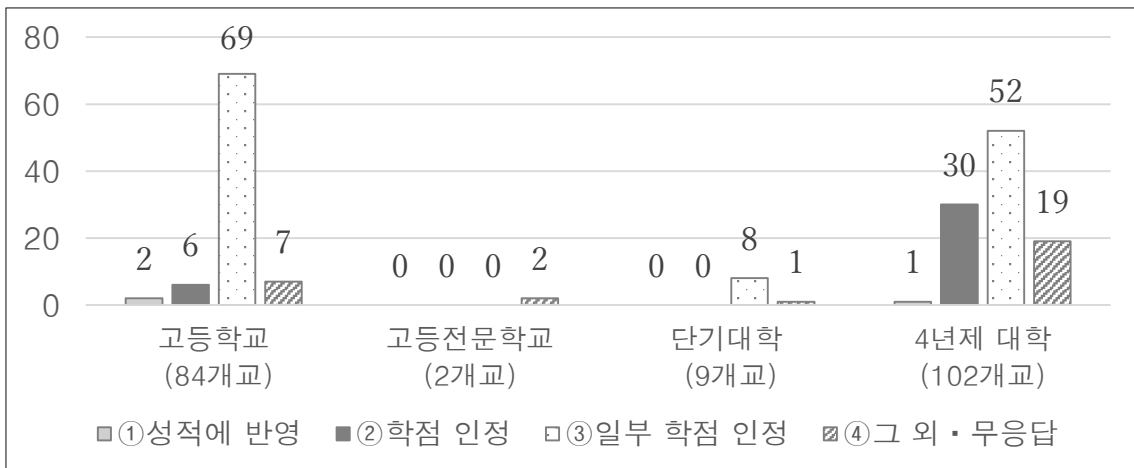


그림 29 학교 종류별 교양 과정의 외부 시험 학점 인정 등 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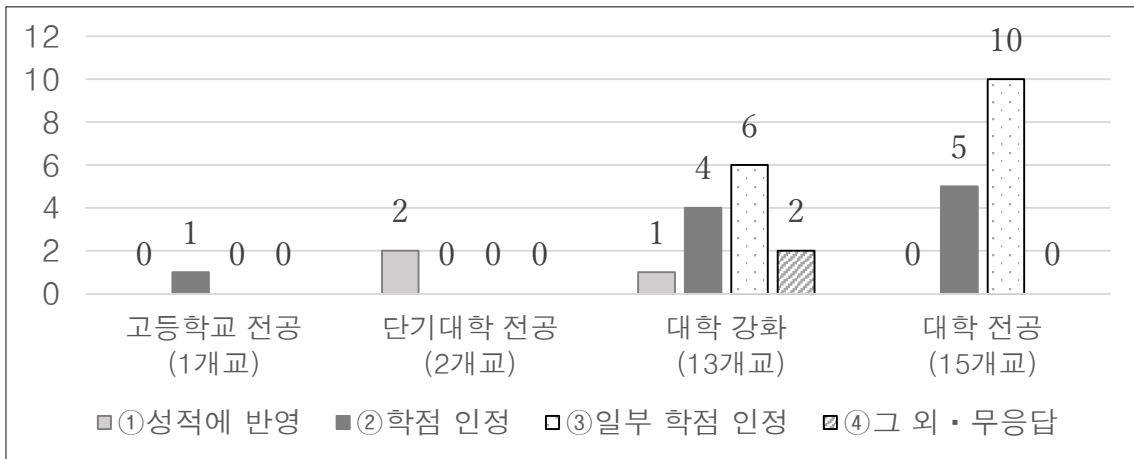


그림 30 학교 종류별 전공 및 강화 과정의 외부 시험 학점 인정 등 제도 현황

그림 29 와 30 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적에 반영한다는 과정은 고등학교 교양 과정이 2개, 4년제 대학 교양 과정이 1개, 단기대학 전공 과정이 2개, 4년제 대학 강화 과정이 1개였다.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과정은 고등학교 교양 과정이 4개, 4년제 대학 교양이 30개, 고등학교 전공 과정이 1개, 4년제 대학 강화 과정이 4개, 전공 과정이 5개였다. 이와 같이 과정 전체로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는 4년제 대학이라도 다수가 아니나 일부 학부학과에서는 학점을 인정하고 있는 과정은 이보다 훨씬 늘어 고등학교 교양 과정이 69개, 단기대학 교양 과정이 8개, 4년제 대학 교양 과정이 52개, 대학 강화 과정이 6개, 대학 전공 과정이 10개로, 어느 학교 종류에서나 거의 다 학점 인정 제도가 일부에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4.10. 한국 학교와의 국제교류

Q10에서는 한국에 있는 학교와의 교류 상황을 물었다. 이 설문에서는 고등학교와 단기대학은 각각 교양과 전공을 합쳐서 집계하고, 대학은 교양과 전공 및 강화로 나누어서 집계한 내용을 제시한다.

먼저 Q10-1에서 교류 상대 학교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는 그림 31과 같다.

선택지는 '① 교류협정을 맺은 학교가 있다, ② 협정을 맺은 학교는 없으나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③ 협정을 맺은 학교는 없으나 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④ 협정도 맺지 않았고 교류 기회도 없다'이다. 무응답은 집계에 넣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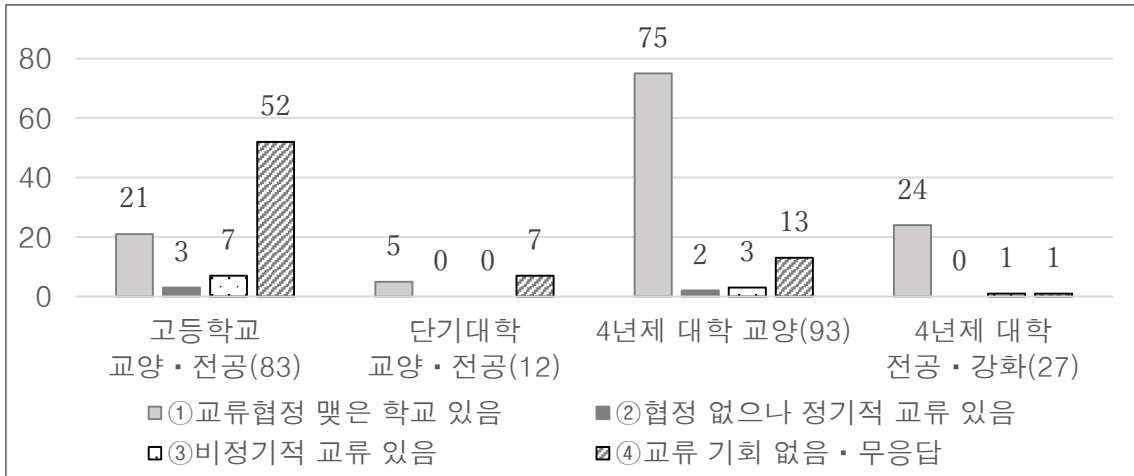


그림 31 한국 학교와의 교류협정 및 교류 기회의 유무

그림 31 를 보면 고등학교는 교류협정을 맺은 학교가 전체의 약 4분의 1이며, 교류협정은 없지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10 개교, 교류 기회가 없는 과정이 52 개로 가장 많았다.

단기대학도 교류협정이 없는 과정이 응답한 12 개 중 7 개로 가장 많았으나 5 개 과정은 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4년제 대학 교양 과정은 교류협정을 맺은 학교가 있다는 응답이 75 개 과정으로 가장 많고, 협정은 없지만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과정이 5 개였으며, 강좌 및 전공 과정에서는 24 개로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Q10-1 에서 교류 협정을 맺은 학교가 있다고 답한 경우에 상대 학교와 상호 방문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선택지는 ‘①정기적으로 상호 방문을 하고 있다, ②부정기적이지만 상호 방문을 하고 있다, ③한국의 상대학교 방문만 하고 있다, ④상대 학교의 일본 내방만 실시하고 있다’이다. 집계 결과를 그림 32 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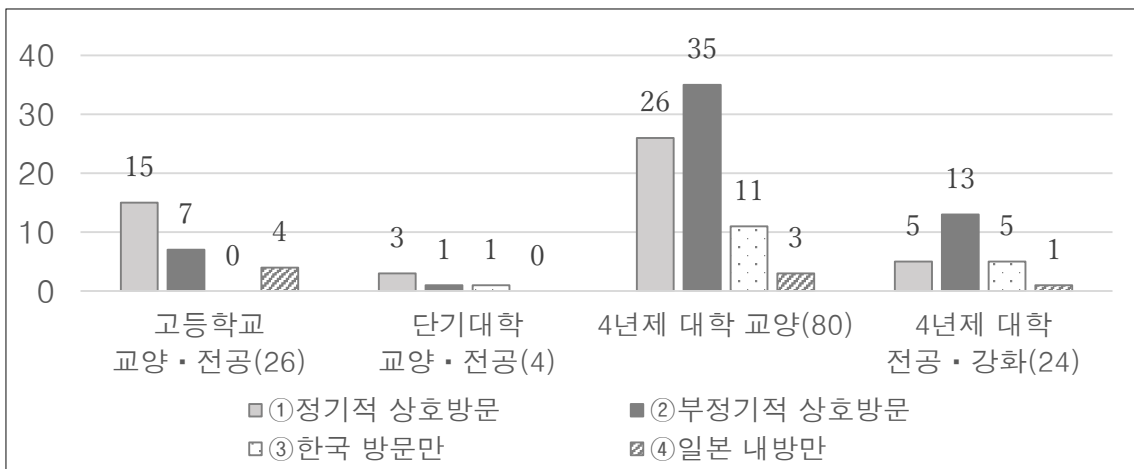


그림 32 협정교와의 교류 현황

고등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고 있는 과정이 15 개, 단기대학도 정기적인 상호 방문이 3개 과정으로 제일 많은 반면에,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양 과정에서도 전공 및 강화 과정에서도 정기적 상호 방문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부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고 있는 과정이 제일 많았다.

Q10-2 에서는 수학 여행이나 연수 여행 등 한국 방문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선택지는 ‘①기본적으로 전원 참가하게 한다, ②학교행사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③수업 과목으로 이 과목의 수강생이 참가한다, ④수업 과목이 아니라 클래스 내나 서클활동에서 희망자만이 참가한다, ⑤그런 기회가 없다’로, 집계 결과를 그림 33 에 제시하되 ⑤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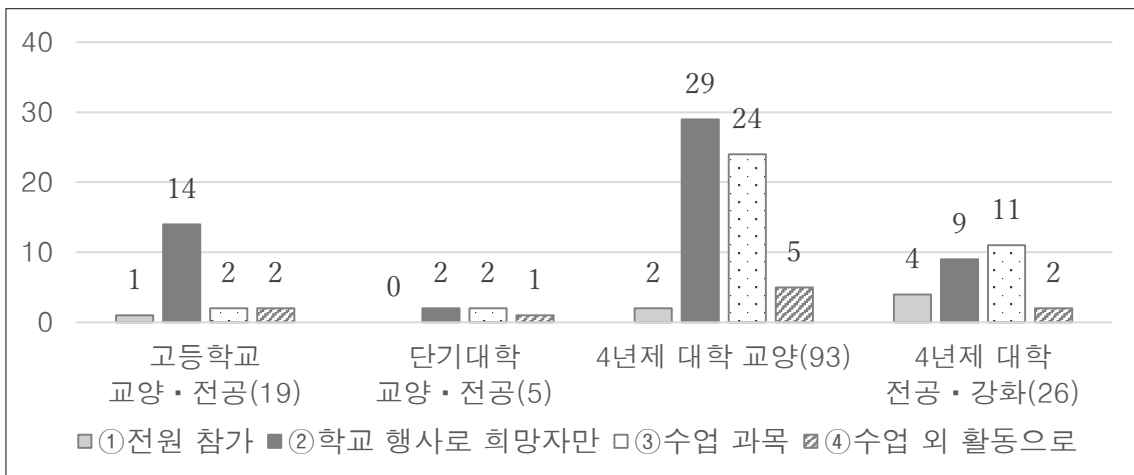


그림 33 수학여행, 연수여행 등의 한국 방문 기회의 실시 방식

과정 수강생 전원이 참가하는 과정이 고등학교에서 1 개 과정, 4 년제 대학 교양 과정에서 2 개 과정, 4 년제 대학 전공 및 강화 과정에서 4 개 과정으로, 어느 학교 종류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학교 행사로 희망자만이 참가한다는 과정이 고등학교 14 개, 단기대학 2 개, 4 년제 대학 교양 과정이 29 개, 4 년제 대학 전공 및 강화 과정이 9 개로 많았다. 단, 수업 과목으로 그 과목의 수강생만이 참가한다는 과정이 4 년제 대학 교양 과정에서 24 개, 전공 및 강화 과정에서 11 개로, 4 년제 대학에서는 같은 수준이었다. 수업 외 활동으로 희망자만 참가하는 방식도 각 학교 종류에서 소수씩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Q10-3 에서는 교류 방식으로 온라인 교류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집계 결과를 그림 34 에 제시한다. 선택지는 ‘①예전부터 비디오 교류, 온라인 합동 수업 등의 교류를 해 왔다, ②COVID-19 사태 이래 비디오 교류, 합동

수업을 하고 있다, ③일부 교원만이 하고 있다, ④특별히 없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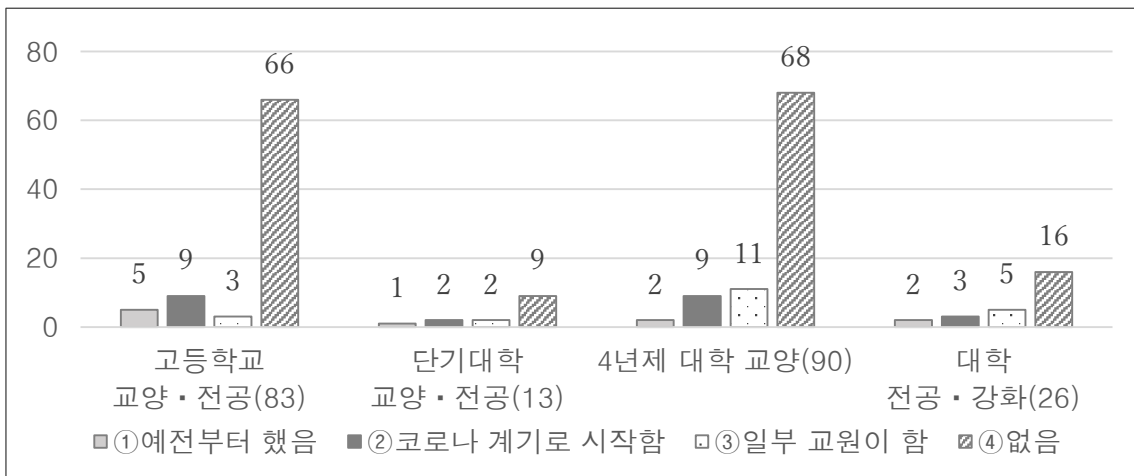


그림 34 비디오 교류, 온라인에 의한 합동수업 등의 실시 현황

모든 학교 종류에서 온라인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과정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교류를 시작한 과정이 고등학교 9 개, 단기대학 2 개, 4년제 대학 교양 과정 9 개, 전공 및 전공 과정 2 개로 소수이긴 하지만 나오고 있다. 예전부터 온라인 교류를 하고 있는 과정은 고등학교에서도 5 개, 단기대학은 1 개, 4년제 대학 교양 과정은 2 개, 전공 및 강화 과정도 2 개 있었다.

Q10-4, Q10-5, Q 10-6 에서는 어떤 유형의 어학연수 혹은 교환유학 등의 현지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Q10-4 는 1 개월 이하의 어학연수 등에 대해, Q10-5 는 1 개월 이상 3 개월 이하의 어학연수 등에 대해, Q 10-6 은 3 개월 이상의 어학연수 혹은 유학에 대해 ①필수과목으로 원칙적으로 전원 참가시키는지, ②수업의 일환 (선택 과목) 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③수업은 아니나 학점 인정 대상인지, ④학점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자유 참가하는지, ⑤특별히 없는지 물어보았다.

1 개월 이하의 어학연수 등에 대한 집계 결과를 그림 35 에, 1 개월 이상 3 개월 이하의 어학연수 등에 대한 집계 결과를 그림 36 에, 3 개월 이상의 어학연수 혹은 교환유학 등에 대한 집계 결과를 그림 37 에 제시하였다. 응답이 '⑤특별히 없다'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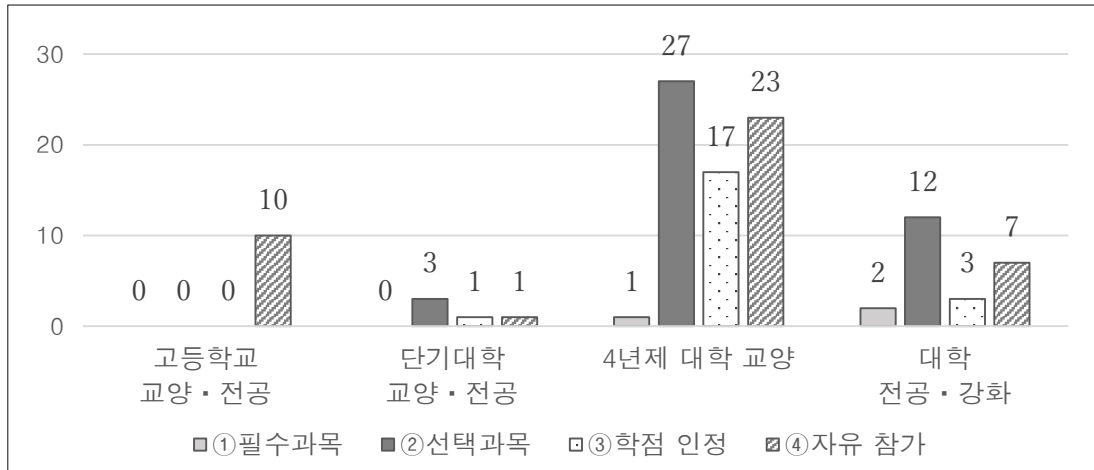


그림 35 1개월 이내의 어학연수의 기회 유무와 실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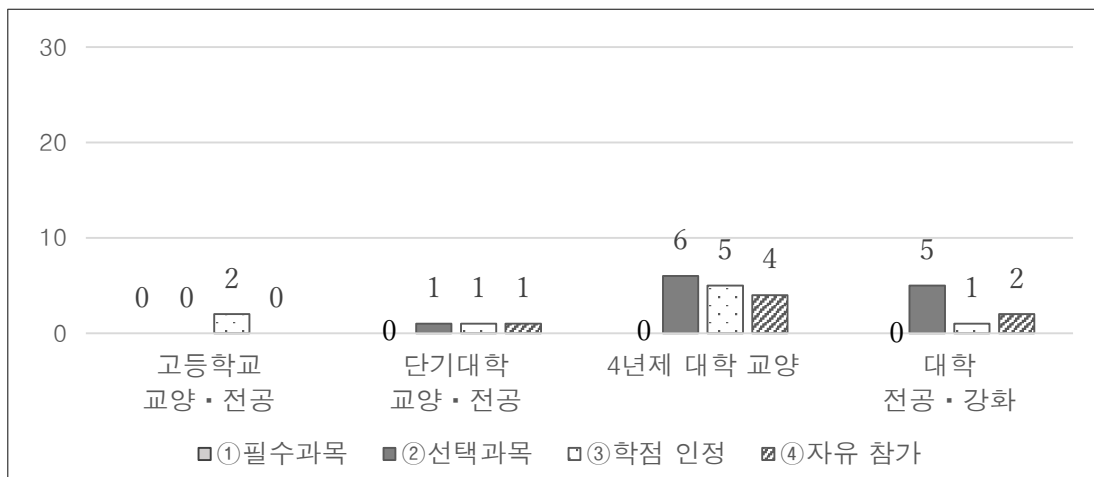


그림 36 1~3개월의 어학연수의 기회 유무와 실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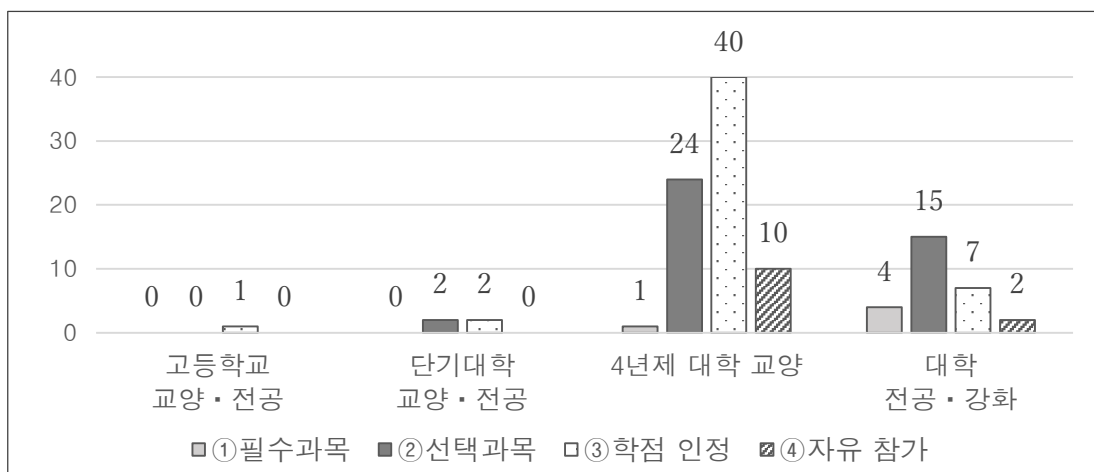


그림 37 3개월 이상의 어학연수 혹은 교환유학의 기회 유무와 실시 방법

그림 35~37 을 보면 전체적으로 1개월~3개월의 어학연수 등을 실시하는 과정은

제한적이며, 1 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의 경우 자유 참가인 경우가 비교적 많고, 선택과목 즉 수업 과목으로서 실시되는 과정이 대학에서는 많았다. 3 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의 경우, 수업이 아니나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이 대학 교양 과정의 경우 가장 많았다.

Q 10-7 에서는 Q 10-1 부터 Q 10-6 까지의 현지 경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①수학여행, ②연수여행, ③어학연수, ④교환유학으로 나누어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학교 혹은 다른 기관에서 지급되는지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복수 응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집계 결과는 그림 38 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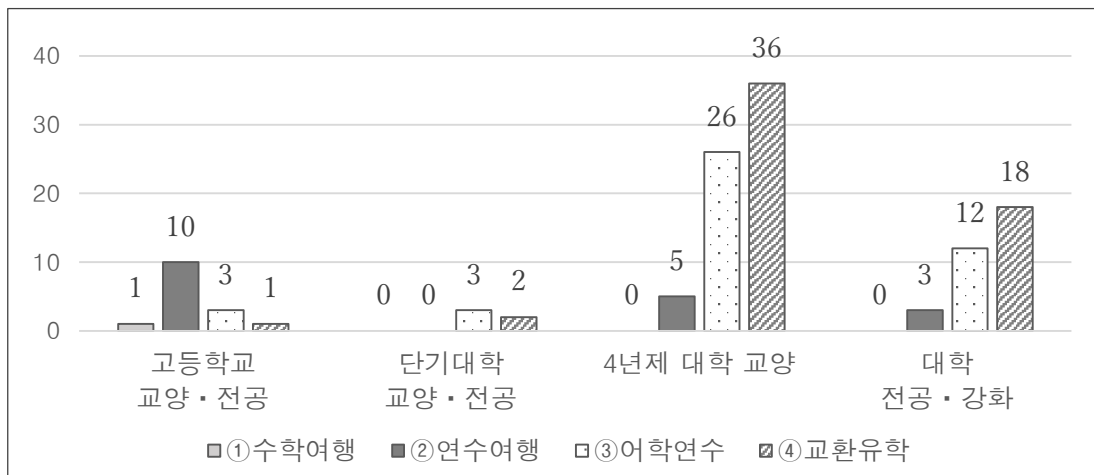


그림 38 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금 수급 현황

그림 38 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연수여행에 대한 지원이 10 개 과정에서 있다고 답한 것을 제외한 다른 유형과 단기대학에서는 지원을 받는 과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대학의 경우 과정 종류를 불문하고 교환유학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교양 과정에서 36 개, 전공 및 강화 과정에서 18 개로 비교적 많고, 어학연수에 대한 지원이 있는 과정이 교양 과정에서 26 개, 전공 및 강화 과정에서 12 개로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11. 한국 관련 행사 실시에 대하여

Q11 은 지난 5년 간에 각 학교 혹은 부처에서 관여하여 기회, 개최한 강연회, 발표회, 교류회, 공개 이벤트, 도서 출판 등에 관한 정보를 묻는 설문이며, 행사 관련은 고등학교에서 8 건, 단기대학에서 1 건, 대학에서 74 건, 출판은 대학에서 9 건이 조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는다.

4.12. 한국학 센터에 대하여

Q12 은 각 학교에 한국학을 주요 연구 테마로 하는 센터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면 그 명칭, 사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설문이며, 6 개 대학에 그러한 센터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국제교류재단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여기서는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

4.13. COVID-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한 변동의 유무

Q13 에서는 조사 연도인 2020 년에 전대미문의 COVID-19 감염 확산 사태를 맞아 한국어 교육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두려고 하였다. 이는 본 조사의 실시 타당성을 가늠하는 것과 동시에 처음 겪어 보는 이 사태 하에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기록해 두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2020 년도에는 연도 초에 실시해야 할 교무 설명회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강생 수가 격감했다, 수업 시간 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다 등의 제보가 있었으며, 국경이 폐쇄됨에 따라 당연히 학교 간 교류 등에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등이 주요 관점이라 판단하여 (1) 수강생 수의 증감, (2) 수업 내용과 방법의 변화, (3)~(5)에서는 학교 간 상호 방문, 어학연수, 교환유학에 대해 그 현황을 물어보았다.

이 설문에서는 응답 유형을 예상하기가 어려워 선택지를 비교적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자유 기술란에 상황을 자세히 기술해 준 응답이 있었으므로, 이들을 그림 밑에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1) COVID-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수강생 수의 증감이 있었는지 물었다. 선택지는 ‘①증가했다, ②특별한 변화가 없다, ③감소했다’이며, 집계 결과는 그림 39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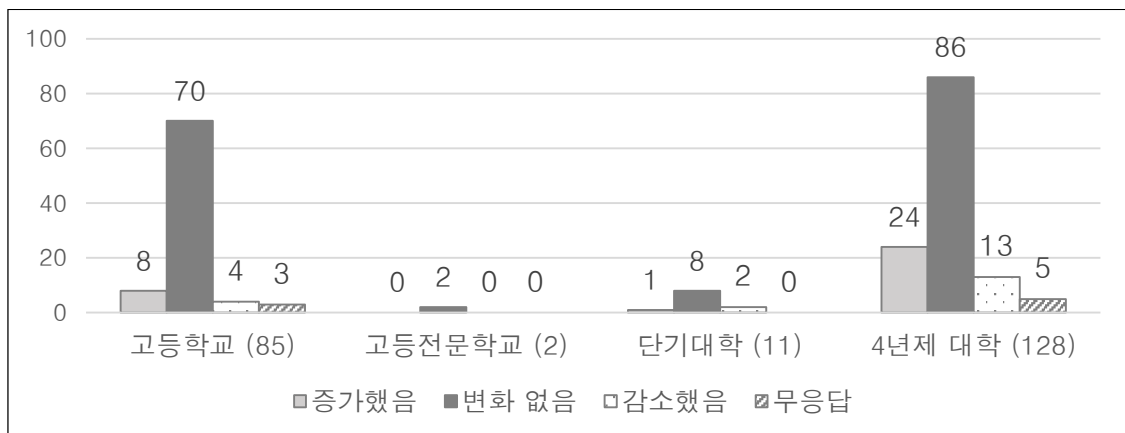


그림 39 COVID-19 감염 확산 사태에 따른 수강생 수의 증감 유무

모든 학교 종류의 총 226 개 과정 중, 수강생 수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과정이 166 개(73%)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한 과정이 33 개(15%), 감소한 과정이 10 개(8%)로, 수강생 수가 늘었다고 답한 과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학교 종류에서도 수강생 수의 증감이 없다고 답한 과정이 가장 많고, 고등학교, 4 년제 대학에서는 감소했다고 답한 과정보다 증가했다고 답한 과정이 더 많았다. 표 26 에서 추가 설명을 살펴보겠다.

표 26 수강생 수 증감에 관한 추가 설명

응답	학교 종류	과정	추가 설명
증가	고등학교	교양	코로나 영향이라기 보다는 K-POP 등 대중문화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됨
	고등학교	교양	코로나보다 K-POP 인기의 영향으로 수강생이 늘었다고 생각됨
	고등학교	교양	본교 한국어 수강생은 매년 늘어나는 경향임
	4년제 대학	교양	의학부의학과·보건학과 등의 학과의 수강생이 늘어함
	4년제 대학	교양	엄밀하게는 이수 희망자가 늘어남 (정원이 정해져 있어 정원이 초과한 분은 다른 언어 학습)
	4년제 대학	교양	한국어 이수 희망자는 늘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담당하는 학생수에 부담이 있어 인원 수를 제한함
변화 없음	4년제 대학	교양	수강생은 매년 늘어나는 경향이며, COVID-19 가 아니더라도 늘어났을 것이라 생각됨. 코로나 영향에 의한 증가 여부를 묻는 질문이라면 「특별히 변화 없음」
	4년제 대학	강화	강화과정이므로 평균 2명~4 명이 희망하기 때문에 2020 년도는 2 명이 희망함
	4년제 대학	교양	사전 희망 조사에서 한국어 희망자는 조금 줄었지만 클래스 편성에 의해 최종적인 수강생 수는 정원제로 변화 없었음
감소	4년제 대학	교양	줄어든 이유는 교실 정원 조정 때문임
	4년제 대학	전공	2 학년 필수어학 유학이 온라인 실시로 대체되면서 다른 전공으로 바꾼 학생이 일부 발생함
	4년제 대학	교양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듦
	4년제 대학	교양	코로나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매년 늘었다 줄었다 하므로 2020 년도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다고 볼 수 있음

수강생 수의 증감이 있었다고 답한 과정도 COVID-19 의 영향과 관계 없다고 하는 설명이 대부분이다. 정원이 있어 수강생 수의 증감이 수강 희망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설명도 있었다. COVID-19 의 영향으로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원 수를 제한함’, ‘교실 정원 조정 때문임’,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른 전공으로 바꾼 학생이 일부 발생함'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2) COVID-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수업 내용에 변동이 있었는지 물었다. 선택지는 '①학습 범위·내용을 변경했다, ②학습 범위·내용에는 변경이 없었으나 수업 진행 방법을 바꾸었다, ③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다'이며, 집계 결과를 그림 40에 제시한다.



그림 40 COVID-19 감염 확산 사태에 따른 수업 내용의 변동 유무

단기대학만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모든 학교 종류에서 ②학습 범위·내용에는 변경이 없었으나 수업 진행 방법을 바꿨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56%였으며, ③변경 없이 진행했다는 응답이 24%, ①범위, 내용을 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했다는 과정이 14%였다. 전체 학교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학교가 수업 내용 혹은 수업 진행 방식을 변경하여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표 26에 제시한다.

표 26 수업 내용 <진행 방식 변경> <범위, 내용 변경> 추가 의견

응답	학교 종류	과정	추가 설명
진행 방식	고등학교	교양	6월부터 수업이 시작되어 진도를 빨리 진행함
	고등학교	교양	휴교 기간 동안의 진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함
	단기대학	전공	2020년도 수업은 첫회부터 정기테스트까지, 그 외 모두 ZOOM (온라인) 으로 진행함
	4년제 대학	교양	동시 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
	4년제 대학	교양	온라인
	4년제 대학	교양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
	4년제 대학	교양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

	4년제 대학	교양	온라인 수업 (온데만도, Zoom)
	4년제 대학	교양	전기는 온데만도와 온라인으로 변경
	4년제 대학	교양	원격 수업용으로 해설 동영상이나 과제 프린트 정리 등으로 진행함
	4년제 대학	교양	온라인으로는 지명하기 힘들
	4년제 대학	교양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지만 일부 원격으로 전환하는 등 실시 형태를 변경함
	4년제 대학	교양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 (온데만도, 실시간)
	4년제 대학	강화	장기 휴가 중에 다음 레벨의 이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강 실시 (비대면, 실시간)
	4년제 대학	전공	봄학기는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실시함. 가을학기는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 실시함. 그러나 통학이 곤란한 수강생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의 전 과목이 대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하이브리드 형 수업을 실시함
범위 · 내용	고등학교	교양	4월부터 6월에 걸쳐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수업형태, 수업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밖에 없었음
	고등학교	교양	한국요리의 조리실습을 중지함
	고등학교	교양	자택 대기중에 문자 학습을 과제로 내줌. 한국 자매학교와 편지로 소통했으며, 2학기 후반에는 온라인으로 4번 실시함
	고등학교	교양	한국인 강사가 연도 도중에 귀국하게 되어 일본인 강사로 교체함
	고등학교	교양	전국종합문화제 개최를 책임진 현<県>인 관계로 한국의 고등학생이 올 예정이었지만 온라인으로 변경함
	4년제 대학	교양	온라인 수업 이전에 비해 학습범위를 좁혀 조정함
	4년제 대학	전공	2학년 필수어학 유학 파견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실시함
	4년제 대학	교양	학습범위를 조금 좁힘

표 26에 의하면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학습 범위를 조금 좁힘으로써 COVID-19 사태에 대응했다는 기술이 있는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휴교’, ‘자택 대기’라는 단어가 주목되는 만큼 수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COVID-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해 교류 상대 학교와 교류하는 데 있어 받은 영향에 대해 물어보았다. (3) 교류 학교와의 상호 방문에 대해, (4) 어학연수에 대해, (5) 교환 유학에 대해 물었으며, 선택지는 ‘①취소되었다, ②형태를 바꾸어 실시하였다, ③원래 없다’로 하였다. (3)에 대한 집계 결과를 그림 41, (4)는 그림 42, (5)는 그림 43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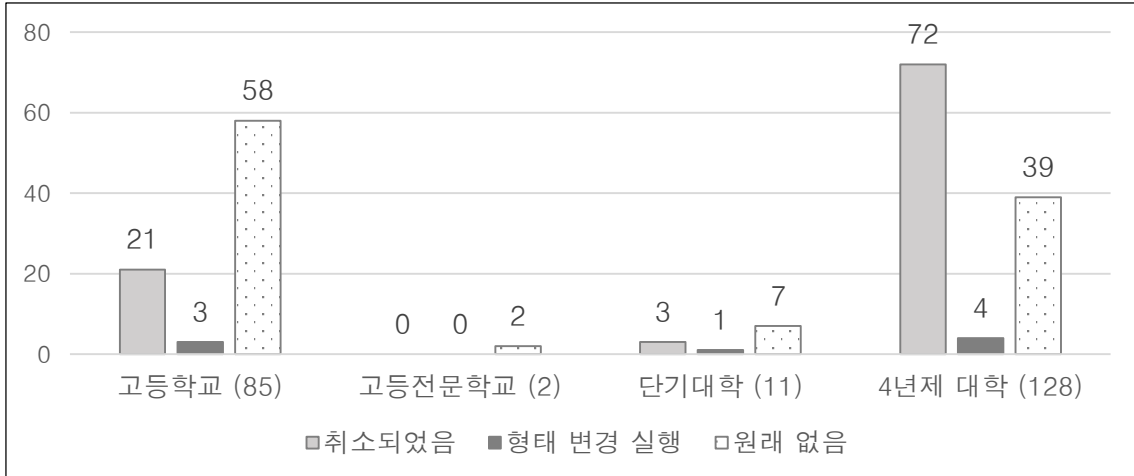


그림 41 COVID-19 감염 확산 사태 하에서 한국 학교와의 상호 교류 실시 현황

그림 41 을 통해서 원래부터 교류가 없는 과정이 고등학교는 58 개(68%)에 이르고, 고등전문학교, 단기대학의 경우도 원래 교류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들 주 형태를 변경해서 교류를 실시한 과정은 4 개였다. 4 년제 대학의 경우는 원래 없는 과정은 39 개(30%)이며 원래 교류가 있는 76 개(60%) 과정 중 4 개(5%)에서는 교류가 취소되었으나 4 개(3%)에 불과한 과정에서 형태를 바꾸어 교류가 이루어졌다. 형태 변경과 관련된 추가 설명은 표 27 과 같다. 모두 온라인 교류로 변경함으로써 상호 교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교류 학교와의 상호 방문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의 추가 설명

학교 종류	과정	추가 설명
고등학교	교양	온라인 교류로 변경
고등학교	교양	온라인 교류로 변경
단기대학	전공	편입학 설명회를 zoom 으로 진행했다
4년제 대학	전공	온라인 교류로 변경
4년제 대학	강화	교류 학교 방문이 취소되어 비디오에 의한 온라인 교류로 변경

다음으로 어학 연수에 대한 집계 결과는 그림 42 에 제시한다. 고등학교는 원래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이 한정되어 있어 그나마 실시했던 과정도 모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대학도 원래하는 과정이 많지는 않으나 2 개 과정은 형태를 바꿔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경우 원래 실시하지 않았던 곳이 32 개(25%)로, 원래 실시했던 84 개 과정 중 70 개(55%)는 취소하였으나 14 개(11%) 과정은 형태를 바꿔 실시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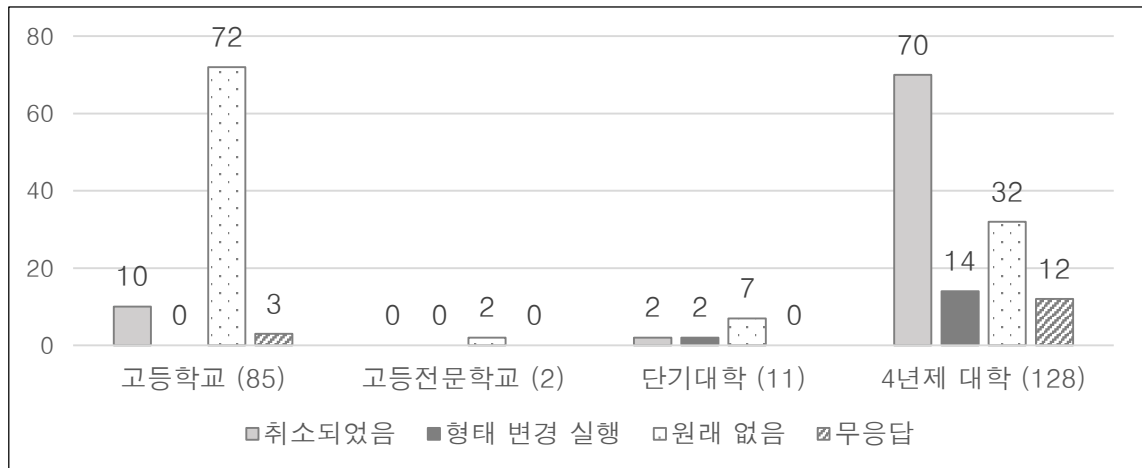


그림 42 COVID-19 감염 확산 사태 하에서의 어학연수 실시 현황

형태를 변경하여 어학연수를 진행한 과정의 추가 설명을 표 28 에 제시한다. 역시 온라인 연수로 변경되거나 유학 시기 혹은 기간을 변경했다는 기술이 많았다. 현지로 유학한 상태에서 혹은 한번 현지로 갔다가 중도 귀국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연수를 받으면 유학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점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 개인의 판단으로 기간을 단축 또는 유학은 단념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어학 연수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의 추가 설명

학교 종류	과정	추가 설명
4년제 대학	교양	교환유학은 예년과 같이 실시됐지만, 현지에서 온라인 수업이 약 3개월 실시됨
4년제 대학	교양	유학 시기 연장 등
4년제 대학	전공	예년 대로 실시함. 서울에서는 대부분 원격수업이었음
4년제 대학	교양	연기 등
4년제 대학	강화	유학개시 기간 변경, 파견기간 단축
4년제 대학	강화	유학개시 시기 변경, 유학기간 단축
4년제 대학	전공	대부분의 유학 희망자는 예정 대로 유학을 갔지만, 일부 학생은 유학을 취소, 또는 일부 학생은 1년에서 반년으로 단축시켜 귀국했다. 또한 현지에서는 일부 수업이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등 예년과는 다른 형태로 실시됨
4년제 대학	교양	2020년 3월 긴급사태선언에 의해 한국 유학 중이던 본교 학생은 대학 당국의 지시로 급히 귀국하게 됨. 그러나 변함없이 유학 중으로 처리함.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강함으로써 유학 단위로 인정함

마지막으로 교환유학에 대한 집계 결과는 그림 43 에 제시한다. COVID-19 감염 확산

사태의 영향으로 교환유학이 취소된 과정이 모든 학교 종류 중 93 개(4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원래 교환유학 프로그램이 3 개(3.5%)밖에 없으며, 단기대학은 11 개 중 4 개(36.4%)가 교환유학을 실시하는데 이들은 전부 취소되었다. 대학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9 개 과정은 형태를 변경하면서 프로그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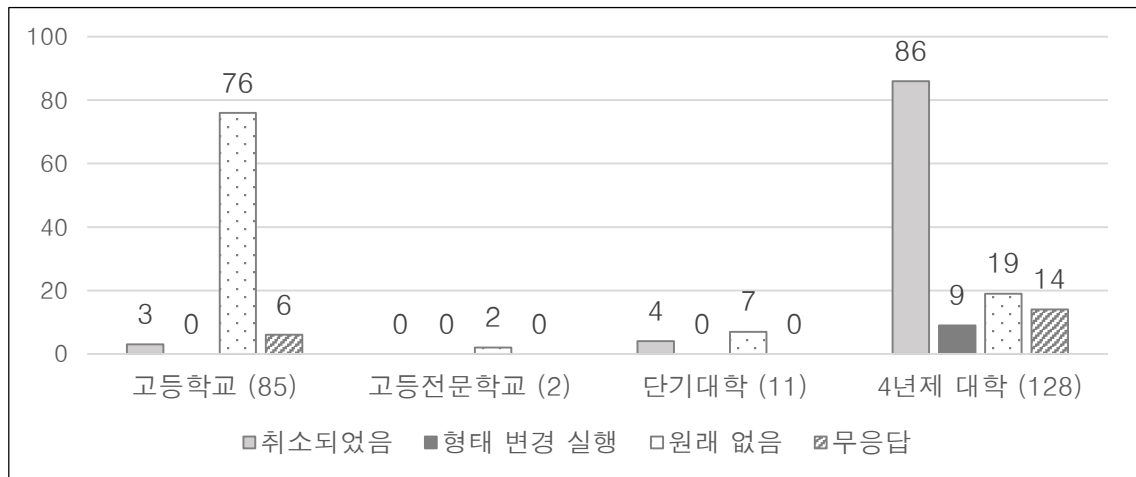


그림 43 COVID-19 감염 확산 사태 하에서의 교환유학 실시 현황

교환유학 프로그램의 형태를 변경하여 실시한 과정의 추가 설명을 표 29 에 제시한다.

표 29 교환 유학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의 추가 설명

학교 종류	과정	추가 설명
4년제 대학	교양	교환유학은 예년과 같이 실시됐지만, 현지에서 온라인 수업이 약 3개월 실시됨
4년제 대학	교양	유학 시기 연장 등
4년제 대학	전공	예년 대로 실시함. 서울에서는 대부분 원격수업이었음
4년제 대학	교양	연기 등
4년제 대학	강화	유학개시 기간 변경, 파견기간 단축
4년제 대학	강화	유학개시 시기 변경, 유학기간 단축
4년제 대학	전공	대부분의 유학 희망자는 예정 대로 유학을 갔지만, 일부 학생은 유학을 취소, 또는 일부 학생은 1년에서 반년으로 단축시켜 귀국했다. 또한 현지에서는 일부 수업이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등 예년과는 다른 형태로 실시됨
4년제 대학	교양	2020년 3월 긴급사태선언에 의해 한국 유학 중이던 본교 학생은 대학 당국의 지시로 급히 귀국하게 됨. 그러나 변함없이 유학 중으로 처리함.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강함으로써 유학 단위로 인정함

역시 COVID-19 감염 확산 사태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거나 유학 시기가 단축되거나,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현지 수업을 받는 등, 예년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조사의 개요와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5.1. 요약

(1) 본 조사는 일본의 고등학교부터 4년제 대학까지 정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2020년도 시점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외적 현황과 교육 내용에 대한 조사이다.

(2) 다양한 교육 체계와 변화하는 교육 제도 안에서 한국어 교육이 놓인 현실을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포괄적인 관점으로 조망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지향하였다.

(3) 외형적 조사로는 인터넷 상에 공개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육과정 관련 정보와 각 대학의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부터 4년제 대학까지 총 8,883개 학교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는 850개 학교로 전체의 9.6%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 및 교육과정 구조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영어 이외의 외국어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총 795개 학교 가운데 453개 학교(57.0%)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4년제 대학의 경우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한국어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내용적 조사는 인터넷 조사 사이트를 구축하여 웹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웹 사이트 구축 비용이 들고 일부의 조사 응답자에게는 낯선 방식이어서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었으나 결과의 집계 및 분석에 편리하다는 점과, 향후 같은 사이트를 통해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웹 기반 조사를 추진하였다.

(5) 조사 항목은 ① 한국어 수업, ② 한국어 교원, ③ 한국어 수강 학생, ④ 한국어 이외의 한국 관련 과목 ⑤ 한국 관련 행사 및 교류, ⑥ 코로나 상황 하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를 의뢰한 850개 학교 가운데 25.9%에 해당되는

226개 학교로부터 회답을 받을 수 있었다.

(6) 한국어 수업과 관련한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2020년 시점에서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한국어 수강자는 전공, 교양, 강화 등 수강 형태를 통틀어 25,000명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학교마다 커리큘럼의 특성도 다르고 응답률이 약 26%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의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사용 교재와 학습 진도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 내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시적인 결과를 얻은 최초의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면밀한 분석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7) 교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4년제 대학 가운데 상근 교원이 없는 과정이 35.4%라는 결과이다. 이는 오구리(2005)에서 전임 교원이 없는 학교의 비율이 67.8%, 기간제 강사가 없는 학교의 비율이 76.0%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현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60% 이상의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교원이 재직 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한국어 교육이 대학 교육에서 제자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빠른 속도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8) 한국어 수강 학생들 가운데 과정 수료 후에도 한국학 관련 전공 과정으로의 진학 혹은 한국 유학 등을 통해 한국어, 한국학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학생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한국에 어학 연수하러 가는 학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COVID-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한 한국어 수강생 수의 변화는 없었으나, 상호 방문 등의 직접 교류와 단기 및 장기 유학 등이 모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전개되면서 학생 교류도 온라인으로 이어가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포착되었다.

5.2. 조사의 의의 및 과제

본 조사는 2000년대 이후의 한국 문화 콘텐츠의 확산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하여 양적 양상 뿐만 아니라 질적 양상을 고등학교 이상의 정규 학교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다룬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조사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우선,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설문문의 구성을 구조화한 웹 기반 조사로 방침을 정하고 시스템을 구현한 바, 향후 일관된 관점에서 연속적인 조사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대상 학교의 일면적이고 표면적인 조사가 아니라 각 학교 및 과정의 특징과 복잡하고 중층적인 시스템의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는 점, 양적 측면과 더불어 교재 및 학습 진도 등 내용적인 측면의 파악이 가능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한국학 교육 및 한국과의 교류, 수강생의 향후 진로 등 한국어 교육을 둘러싼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가 포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2020 년도의 특수 사정인 COVID-19 감염 확산 사태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 미친 영향을 기록에 남길 수 있는 내용이 조사에 포함되었다는 점 또한 본 조사의 의의를 가증시켜 준다. 아울러 온라인 환경에서 조사팀 내부의 활발한 의사소통 노력이 이 비상사태 하에 이루어진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의 조사에서 실제적인 참고가 될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본 조사의 의의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하며 조사 자체의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 또한 존재한다.

무엇보다 조사 응답률을 제고할 방법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850 개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모든 학교에 조사를 의뢰하여 226 개 학교로부터 회답을 받아 평균 25.9%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전국 규모의 전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좀더 응답률을 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응답자가 응답을 위한 시간을 넉넉히 가질 수 있는 일정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조사에서는 개선될 것이 확실하다. 둘째, 조사에 참가하는 것이 각 학교 또는 과정 담당자가 자신의 위치를 전체적인 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제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한국어 교육의 표준 모델 구축의 일조가 된다는 것을 실감케 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 추출된 각 과정 시수와 교재 및 진도 관련 정보는 한국어 교육의 표준 모델 구축에 직결되는 귀중하고도 유용한 데이터이다. 이를 활용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조사의 의의가 확인될 것이며, 후속 조사의 응답률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전국의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단기대학, 4 년제 대학의 한국어 교육 또는 교육행정 담당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본 조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조사 결과를 널리 공유하고 제삼자의 시점에서의 건설적 비판을 받음으로써 향후 후속 조사에 참고로 삼으며 나아가서는 한국어 교육계 및 한국학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일본어 문헌>

- 大村益夫(오무라 마스오), 1977, ‘大学における朝鮮語講座の現状(대학에서의 한국어 강좌 현황)’, “季刊三千里”, 12.
- 大村益夫(오무라 마스오), 1984, ‘大学における朝鮮語教育の現状(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季刊三千里”, 38.
- 国際文化フォーラム(국제문화포럼), 1999, “日本の高等学校における中国語教育の広がり－韓国朝鮮語教育との比較で見る－(일본 고등학교에서의 중국어 교육의 발전 양상-한국어 교육과의 비교를 통하여-)”.
- 国際文化フォーラム(국제문화포럼), 2005, “日本の学校における韓国朝鮮語教育－大学等と高等学校の現状と課題－(일본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현황과 과제-)”.
- 文部科学省総合教育政策局教育改革・国際課(문부과학성 종합교육정책국 교육개혁・국제과), 2018, ‘平成 29 年度高等学校等における国際交流等の状況について(2017 년도 고등학교 등에 있어서의 국제교류 등의 상황에 대하여)’.

<한국어 문헌>

- 국제교류재단, 2018, “2018 해외 한국학백서”, 한국국제교류재단
- 오고시 나오키, 1994, ‘일본에 있어서의 Korean language 교육의 실태 조사’, “한국어 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1-284.
- 조선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현황조사분과회, 2020, 일본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 중간 보고서.

